



#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2015-1125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 주문

스포츠동아 2015년 4월 6일자 15면 「안면경련증, ‘미세혈관감압술’로 효과적 치료」, 4월 13일자 15면 「안면경련증, ‘미세혈관감압술’로 부작용 없이 치료」, 4월 20일자 15면 「안면경련증, ‘미세혈관감압술’로 흉터 없이 치료」, 4월 27일자 15면 「안면경련증, 증상에 따른 맞춤형 치료 필요」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한다.

### 이유

스포츠동아의 위 칼럼들은 특정 병원 원장의 기고문으로, 필자가 소속된 병원에서 시술하는 ‘미세혈관감압술’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스포츠동아는 4월 한 달간 제목과 내용이 유사한 칼럼을 모두 4회에 걸쳐 게재했다.

이처럼 특정 병원 관계자가 쓴 같은 주제와 내용의 칼럼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스포츠동아는 또 위 칼럼들을 통해 필자가 소속된 병원의 진료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병원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228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동현

### 주문

스포츠경향 2015년 8월 27일자 17면 「김희수의 무속세상 원한을 풀어주는 천도재」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한다.

### 이유

#### 1. 스포츠경향은 위 적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TV연속극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귀신이 씌지 않고서는 저렇게 변할 수 없다’고 말하곤 한다. 우리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상담유형을 볼 때 이러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올 신학기 초에 찾아온 50대 아주머니는 신당에 왔더니 상담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참동안 방 내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피었다. 내가 무슨 고민이 있어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아이가 집을 나가서 며칠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성격도 명랑하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족들의 사주를 물어보고 신령점으로 살펴보니 젊은 남자의 죽은 원귀가 따라다니고 있었다. 혹시 집안에 장가도 못 가고 죽은 젊은 남자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네, 맞아요. 남편보다 네 살 위인 형이 군대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몽달귀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처음 신당에 왔을 때 뭔가 꺼림칙한 표정으로 경계하던 모습은 오간 데 없었다. 내 앞에 바짝 다가오더니 살풀이를 하고 원한이 있는 조상을 천도하기로 날을 잡자고 서둘렀다. 천도재를 지내기로 약속한 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제 딸이 새벽에 옷보따리를 싸들고 들어왔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서요.”

“그것 참 잘됐네요. 데리고 오세요.”

그날 밤, 조상 천도재 굿을 하고 살풀이를 하게 됐다. 귀신을 그려 벽에 붙여 놓고 활을 쏘는 일이었다. 나이대로 활을 쏘는데 일곱 개재 화살을 쏘 때였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집 딸이 불안간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었다.

“엄마, 저기 귀신이 계속 나만 쏘아보고 있어요.”

나는 놀란 아이를 달래고 계속 활시위를 당겼다. 그리고 활을 다 쏘고 나서 마지막 화살을 그 아이의 등 부위 옷에 꽂았다.

그 순간 아이는 아픈 소리를 냈지만, 일이 끝난 뒤에는 생글생글 웃었다.

“엄마, 허리도 안 아프고, 이상해요.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괴롭혔던 귀신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딸아이는 다시 학업에 매진하는 모범생이 됐다.(02-577-0541/010-4841-9008)』

## 2. 위 칼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경향은 무속인 김희수의 ‘무속세상’이라는 고정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위 칼럼은 김희수씨가 모범생이던 여고생의 가출 원인이 장가도 못가고 죽은 원귀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천도재를 통해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내용이다.

칼럼에 따르면 무속인 김 씨는 50대 여성 의뢰자로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명랑한 여고생 딸이 가출한 사연을 듣고 그 가출 원인을 신령점과 사주로 밝혀낸다. 칼럼은 『가족들의 사주를 물어보고 신령점으로 살펴보니 젊은 남자의 죽은 원귀가 따라다니고 있었다.』고 기술했다. 이어 『혹시 집안에 장가도 못 가고 죽은 젊은 남자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무속인 김 씨는 천도재 굿과 살풀이를 통해 귀신을 쫓는 장면도 상세히 칼럼

에서 묘사했다. 귀신을 그려 벽에 붙여 놓고 활을 쏘자 여고생은 “엄마, 저기 귀신이 계속 나만 쏘아보고 있어요.”라며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것이다. 또 여고생의 나이대로 활을 다 쏘고 나서 마지막 화살을 그 아이의 등 부위 옷에 꽂는 순간에 아픈 소리를 내던 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엄마, 허리도 안 아프고, 이상해요.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이 장면을 두고 칼럼에서 『이 아이를 괴롭혔던 귀신이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위 칼럼은 김 씨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었지만 그 내용이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미신적인 것이다. 비록 무속이 우리 전통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무속인의 기이한 체험담을 공공매체인 신문 칼럼에 사실인양 게재하는 것은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평론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 칼럼은 이처럼 무속인 김 씨의 신통력을 소개한 뒤 말미에 그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영리를 위한 홍보성 칼럼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칼럼은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 「평론의 원칙」 전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273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재호

### 주문

東亞日報 2015년 9월 14일자 B5면 「프리미엄 식품 强者’ 현대백화점, 한우 선물세트의 격을 높이다」, 9월 15일자 B5면 「마음의 온도’까지 높여주는 아웃도어/네과, 우리 사회 덤퍼주는 ‘따뜻한 패딩’ 찾는다」, 9월 22일자 B5면 「세계

최고 5060만 화소 DSLR가 빛어낸 마법/캐논 極<극>·사·실·주·의」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東亞日報 9월 14일자 B5면



東亞日報 9월 15일자 B5면



東亞日報 9월 22일자 B5면

東亞日報은 「프리미엄 뷰」라는 면 제목 아래 전면을 할애해 현대백화점, 네파, 캐논의 기업 활동과 제품 등을 여러 장의 사진을 곁들여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9월 중 3차례에 걸쳐 각각 게재했다. 큰 제목은 광고 카피를 연상케 하는 내용에 해당 기업의 이름까지 표기돼 있으며, 게재된 사진들은 해당 기업들이 광고용으로 촬영한 것으로 의심될 정도이다. 네파, 캐논을 홍보하는 지면에는 관련 기업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까지 있다.

기사 끝부분에 ‘동아일보 사진부’라는 바이라인이 표기돼 있는 것으로 보아 「프리미엄 뷰」 지면은 東亞日報 사진부에서 해당 기업의 홍보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특정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201 신문윤리강령 위반

###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 주문

헤럴드경제 2015년 6월 15일자 17면 「올가니카, 제품개발 총괄 셰프 크리스틴 조 전격 영입/“생식은 心身에너지 … 대중적 클렌즈 선보일 것”」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생식을 하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프리미엄 내추럴푸드 전문기업 올가니카(대표 최정희·정형호)가 뉴욕과 할리우드 슈퍼리치들의 프라이빗(private) 셰프로 활약해 온 생식·채식 전문가 크리스틴 조(Christine Cho·40) 씨를 제품 개발 총괄 셰프로 전격 영입했다. 올가니카는 크리스틴 조의 영입을 통해 비건(vegan·채식) 푸드와 로푸드(Raw Food·생식)의 정수를 야심차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일 서울 후암동 헤럴드스퀘어에서 조 씨를 만나 그의 이야기들을 들어봤다.

▶슈퍼리치들이 원하는 건 ‘건강’이었어요= 크리스틴 조가 로푸드 전문가로 이름을 쌓기 전, 배움에 대한 열정이 처음 향했던 곳은 미술이었다. 뉴욕 파슨스(Parsons)를 진학하기 원했던 그는 ‘진지한 공부’를 하기 위한 어머니의 뜻을 따라 NYU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그는 “한바퀴 돌아 나의 예술이 음식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창의적인 일에 대한 열망으로 조 씨는 뉴욕의 정통 프랑스 요리학교(FCI)에서 새롭게 인생의 커리어를 만들었다. FCI에서 공부하는 첫 날, 그는 “나는 요리하기 위해 태어났음”을 느꼈다고 했다.

프라이빗 셰프는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의 손에서는 레스토랑에서 대중의 입 맛에 맞는 요리가 아닌, 본인의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맛과 영양을 담은 ‘맞춤형 요리’가 탄생한다. 우연한 기회로 FCI 재학 당시 포춘 500기업의 하나인 Glocap.net 창립자의 프라이빗 셰프로 일했다. 이후 조씨는 세계적인 스타들과 금융계 거부들의 식단을 책임져왔다. 그들과 맺은 비밀서약에 따라 일일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다수의 월가 빌리어네어들이 모두 그녀의 고객이었다. 그들을 따라 16년간 뉴욕과 할리우드, 파리, 두바이 등을 오갔다.

베일 속에 가려져있는 ‘슈퍼리치’들의 생활을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요리했던 경험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객 운이 매우 좋은 편이었고 제 커리어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성공적이고 영향력있는 사람들을 위해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에서 요리하는 것은 영광이었어요”라고 했다.

“저는 뉴욕시의 소위 말하는 상위 0.5%를 위한 요리를 해봤어요. 그들이 수입과 무관하게 집에서 얼마나 간단하게 먹는지를 알면 놀랄 거예요.”

역만장자, 유명인사들을 위해 일 하면서 느낀 것은 이들이 원하는 공통분모는 늘 ‘건강’이었다는 점이다. 조씨는 “고객이 다이어트를 위해 고군분투하든, 식품 트렌드를 따르고자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것이었다”고 했다.

▶“생식과 채식의 장점은 ‘목적의식’이 있다는 것”= 몸에 좋은 식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요구는 곧 건강식에 대한 조씨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2012년, 조씨는 생식의 대가로 알려진 메튜 케이의 로푸드 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렸다.

“생식이 모든 식생활의 근간이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생식이 단순히 과일이나 채소 등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먹는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오히려 생식 레시피로도 파인 레스토랑 메뉴 못잖은 접시가 나오기도 한다.

그는 “메튜 케이의 교육 중 좋았던 부분은 로푸드의 비주얼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법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라며 “마카다미아로 치즈를 만들고 코코넛버터로 트리플을 만들었는데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볼 수 있는 비주얼과 같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생식에 대해 물었다. “생식은 생 채소, 과일, 곡물을 통해 최대 영양과 효소를 제공해요. 조리나 가공이 없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체내 면역

력도 증진되고 지속적인 해독을 통해 심신의 에너지를 주죠.”

조 씨가 생각하는 생식의 가장 좋은 점은 ‘목적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생식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는 건강이다. 다행히 그 목표에 맞게 생식은 사람을 힐링시켜주고 기분과 외모의 기능을 높여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생식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식품’을 먹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식을 하는 사람도 함께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생식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 열을 쓰지 않으면서도 영양과 맛을 담은 요리를 만들어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 씨는 뉴욕을 중심으로 시작해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주스(Juice) 트렌드’가 반갑다고 했다. 주스는 생식을 가장 쉽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올라니카에 합류하면서 그는 현재 올라니카의 ‘저스트주스 클렌즈’의 변화와 혁신을 피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저스트주스 클렌즈가 갖고 있는 정통 클렌즈의 성격을 중심으로 좀 더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해 볼 생각이예요. 미리부터 너무 강력할 필요도, 하드코어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단 맛을 조금 가미하는 등 대중화된 맛을 소개한 후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쯤 더 높은 단계의 클렌즈를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더불어 그는 육류와 유제품을 포함하지 않는 비건푸드(vegan food·채식)의 제품도 다수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는 “친환경·건강식·자연식을 지향하는 올라니카의 내추럴스낵의 라인업을 더욱 다양화하고, 가정간편식 시장에도 무첨가, 비건, 글루텐프리, GMO프리 등의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며 “맛과 영양과 가치를 담은 식품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을 응원하고 지속가능한 영농과 환경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올라니카의 철학을 구현해내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털어놨다.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서 올라니카와 함께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된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묻어났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식재료와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내추럴푸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흥정옥 올라니카 회장의 비전에 공감해 합류를 결정했다는 그. 그의 말은 묵직한 무

계감으로 다가온다.

“(프라이빗 셰프로서)모험을 즐기는 삶이 매우 즐거웠지만, 지금 저는 커리어의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됐고, 올가니카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내추럴푸드 시장의 개척자인 올가니카가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친환경, 자연식, 건강식 식품 트렌드를 선도하고, 나아가 내추럴푸드의 본고장인 미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더하겠습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61500056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1개 지면 가운데 5분의 4 정도를 할애해 식품기업인 ‘올가니카’가 영입한 제품개발 총괄 셰프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이 기업은 흥정옥 헤럴드경제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헤럴드경제 자회사다.

기사는 올가니카가 뉴욕과 할리우드 슈퍼리치들의 프라이빗(private) 셰프로 활약해 온 생식·채식 전문가를 제품 개발 총괄 셰프로 전격 영입해 비건(vegan·채식) 푸드와 로푸드((Raw Food·생식)의 정수를 야심차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의 경력과 제품 개발 구상 등을 상세히 다뤄 사실상 올가니카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총괄 셰프와 흥회장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사진을 크게 실었다. 헤럴드경제는 같은 날자 2면에 「올가니카, 비건·로푸드 전문 셰프 크리스틴 조 영입」이라는 제목의 스트레이트 기사를 싣고 위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처럼 언론이 특정 식품기업의 제품 개발자 영입에 대해 스트레이트 기사와 인터뷰 기사로 대서특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언론사가 자회사와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이러한 지면을 제작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20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3.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 주문

매일경제 2015년 6월 8일자 「THE CAR」 별지 섹션, 중앙일보 6월 25일자 「자동차」 별지 섹션, 東亞日報 6월 26일자 「CAR」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유

위 신문들은 자동차를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기업이나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중앙일보, 東亞日報는 해당 지면에 일부 관련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 기업 등에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일부 해당 광고까지 실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42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방상훈

주문

朝鮮日報 「일산 이마트타운」 별지 섹션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朝鮮日報의 위 별지 섹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H1면



H2~H3면



H4면

』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은 2015년 8월 8일자 신문과 함께 위 별지 섹션을 배달했다. 섹션은 4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1~3면에는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대형 복합마트인 일산 이마트타운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가 각각 전면에 걸쳐 게재돼 있고, 4면에는 이마트타운 전면 광고가 게재돼 있다. 또한 1면에는 이마트타운 약도와 개요가 그래픽으로 처리돼 있다.

섹션에 게재된 기사는 7건이며(용어설명 제외), 모두 이마트타운을 장점 위주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다. 섹션 1면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이마트타운 전경 사진이, 2~3면에는 5컷의 이마트타운 내부 사진이 각각 게재돼 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의 바이라인에 ‘조선비즈 기자’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이 섹션은 朝鮮日報의 자회사인 조선비즈에서 제작해 朝鮮日報과 함께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섹션에는 일반적인 신문 지면이나 다른 광고성 섹션과 달리 발행일자가 표기돼 있지 않다. 朝鮮日報 홈페이지의 ‘지면보기’에서도 이 섹션은 검색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발행일자가 표기되는 위치인 지면 맨 윗부분에도 발행일자 대신 ‘조선비즈 특집’ 표현만 적혀 있다. 신문지면에 발행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이다.

섹션의 편집도 다른 광고성 섹션과는 차이가 난다. 1~3면 기사, 4면 광고라는 지면 배치는 통상적인 광고성 섹션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3면을 광고 없이 통단 기사로 채운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1면의 섹션 제목을 세로로 배치한 것은 朝鮮日報의 다른 섹션의 1면 섹션 제목이 가로로 배치된 것과 완전히 다르다. 또한 朝鮮日報의 다른 광고성 섹션에 ‘조선일보 특집’ 표현이 들어가는 것과 달리 이 섹션에는 ‘조선비즈 특집’ 표현이 1~3면에 표기돼 있다.

「일산 이마트타운」 섹션은 발행일자 표기도 없고, 편집에서도 다른 광고성 섹션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제작한 신문 지면이라기보다는 광고



물로 의심받을 소지가 크지만 이 섹션에는 어느 곳에도 광고물임을 알리는 표현이 없다.

따라서 朝鮮日報는 일산 이마트타운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지면을 제작해 朝鮮日報와 함께 배포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발행일자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작 및 보도 행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3조 「언론의 독립」,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277 신문윤리강령 위반

### 제주일보 발행인 오영수

#### 주문

제주일보 2015년 8월 26일자 10면 「제주 삼다수 글로벌 명품을 꿈꾼다 ①먹는샘물의 역사/‘블루오션’ 먹는샘물 시장 무한경쟁 돌입」, 9월 2일자 10면 「제주 삼다수 글로벌 명품을 꿈꾼다 ②삼다수의 태통/도민 공동의 자산보호 위해 공수화 개념 도입」, 9월 9일자 10면 「제주 삼다수 글로벌 명품을 꿈꾼다 ③삼다수의 발전/출시 첫해부터 17년간 먹는샘물 ‘부동의 1위’ 유지」, 9월 16일자 10면 「제주 삼다수 글로벌 명품을 꿈꾼다 ④도전에 직면한 삼다수 (1)/점점 치열해지는 국내시장, 까다로운 ‘소비자 입맛’따라 물시장도 고급화·다원화」, 9월 23일자 10면 「제주 삼다수 글로벌 명품을 꿈꾼다 ④도전에 직면한 삼다수 (2)/수출 경험 부족·막대한 물류비 … 해외시장 뚫기 ‘바늘 구멍」 제목의 시리즈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 1. 제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8월 26일자>= 『제주의 청정 지하수를 활용한 삼다수가 16년째 국내 시장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이른바 ‘국민 생수’의 자리를 굳히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 하락과 프리미엄 생수 시판 실패, 지지부진한 수출 시장 개척 사업 추진 등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국민 생수인 삼다수가 글로벌 명품 삼다수로 비상할 수 있는 방안에 마련하기 위해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국내·외 먹는샘물 시장의 역사와 발전 현황, 삼다수 유통의 현 실태와 개선 방안, 그리고 미래 비전 등을 8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 ▲먹는샘물이란

샘물이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마시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를 말한다.

또 먹는샘물은 이러한 자연 상태의 깨끗한 샘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물리적인 처리를 거친 물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은 광천수와 용천수, 정제수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광천수는 지하 대수층의 자연적 혹은 인공적인 구멍에서 퍼올리거나 자연적으로 솟아난 미생물이 없는 물을 말한다.

용천수는 지하에서 물이 흐르는 층을 따라 이동하던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통해 지표면으로 솟아나오는 것을 일컫는다.

정제수는 강이나 호수, 지하수 등을 정수처리한 물을 말하며 수돗물이 대표적인 정제수다.

#### ▲우리나라 먹는샘물의 역사

국내 먹는샘물 산업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일본인이 충청도 초정리 약수터를 개발해 ‘구리스다루’라는 이름으로 천연사이다와 천연탄산수를 생산한 게 시초다.

이후 1974년 미8군 주둔 병사들과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는 조건으로 미국인에 의해 서초구 서초동 롯데사이다 공장 내의 지하수에서 물을 채수해 병에 담아 팔기 시작했다.

이어 1976년 다이아몬드 정수가 최초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맞아 공식적으로 첫 판매가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는 먹는샘물 시판이 자칫 수도물 정책의 포기로 비칠 것을 우려해 서울올림픽 직후 생수판매를 금지했다.

그런데 1994년 대법원이 먹는샘물 유통 금지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1995년 국회가 ‘먹는물 관리법’을 제정하면서 공식적인 산업화의 길이 열렸다.

이후 삼다수를 비롯한 다양한 먹는샘물들이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 ▲국내 먹는샘물 시장의 발전

세계 먹는샘물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웰빙(Well-Being) 및 건강과 환경이 결합된 소비의 생활 패턴인 로하스(Lohas) 시대에 발맞춰 세계 물산업 분야에서 먹는샘물 사업 분야가 공공 분야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며 블루오션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략〉

#### ▲해외 먹는샘물 시장의 발전

해외에서 먹는샘물은 1960년대까지 유럽에서 대부분 약국과 약방을 통해 유통됐으며 환자를 위한 기능성 음료 정도로 간주됐다.

그런데 먹는샘물 시장은 19세기 이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급속한 인구 증가 및 도시화로 인한 수요의 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수질오염의 문제로 수자원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

〈하략〉

〈9월 2일자〉= 『▲삼다수 사업 시작의 계기

정부는 생수를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했지만 1994년 3월 이 같은 행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듬해인 1995년 5월부터 먹는샘물(생수·광천수)의 판매가 완전히 허용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경우 지하수 고갈과 해수 침투에 의한 오염 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특별법에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아니면 먹는샘물의 제조·판매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략〉

#### ▲삼다수의 우수성과 경쟁력

삼다수는 바람, 돌, 여자가 많다는 뜻에서 유래한 '삼다도'의 '삼다'와 물이란 의미의 '수'를 결합해 독특한 지역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적 특성, 화산섬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삼다수는 지하 420m의 깊은 곳을 흐르는 화산암반수를 사용한다. 제주지역의 화산암반수는 화산암층에 부존하는 지하수를 통상적으로 말하며 △약알칼리성(pH 7.7~7.8) △경도가 낮은 부드러움(17~19ppm) △바나듐과 실리카와 같은 건강에 좋은 미량성분 함유 △계절적 수질변화가 없는 안정성 △방사성 물질 미함유 등의 특성이 있다.

〈하략〉

#### ▲삼다수 생산 과정은

제주도개발공사는 현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취수원 2곳(6개공)에서 1일 7600t의 지하수를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1997년에 완공된 제1취수원에는 해발 440m 지점에서 지하 420m까지 착정한 취수정 3개공과 같은 지점에서 지하 400m까지 착정한 감시정 6개공이 있으며 이곳에서 1일 최대 3700t의 지하수를 뽑아낼 수 있다.

〈하략〉

〈9월 9일자〉= 『제주삼다수는 1998년 3월 출시된 이후 연평균 12.7%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확대를 꿈꾸고 있다.

▲급증하는 판매량= 삼다수는 출시 3개월 만에 국내 먹는샘물 페트병 시장 1위에 올랐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다.

삼다수 판매량 추이를 보면 판매 첫해인 1998년 6만9689t을 판매한 데 이어 10년 뒤인 2007년에는 31만3561t으로 늘어났다.

〈하락〉

〈9월 16일자〉= 『먹는샘물을 판매하기 위한 국내시장도 점점 치열해 지고 있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의 구분=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물의 종류는 자연 상태의 물과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먹는샘물은 음용수를 병에 넣어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먹는샘물의 사전적인 의미는 샘에서 나오는 물이지만 실제로는 원수의 여과와 살균 과정을 거쳐 생산한 상품화된 물을 말한다.

즉, 샘물은 암반대수층 내부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일컫으며 먹는샘물은 샘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일정의 처리과정을 거쳐 제조한 제품인 것이다.

〈하락〉

〈9월 23일자〉= 『제주삼다수의 국내 먹는샘물시장 점유율이 매년 하락하면서 ‘국민 생수’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020년까지 제주삼다수의 시장 점유율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장 점유율 하락= 제주삼다수의 국내 먹는샘물시장 점유율은 2011년 48.6%에서 2012년 38.7%, 2013년 36.5%, 지난해 36%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잇따라 PB(자체 상표)상품을

개발하고 농심과 하이트진로가 각각 ‘백산수’와 ‘석수’를 출시하는 등 대기업들이 먹는샘물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제주일보의 위 기사는 8회에 걸쳐 게재한 「제주 삼다수 글로벌 명품을 꿈꾼다」라는 제목의 시리즈다. 매번 1개면 전면에 게재한 대형 기획물로 8월 26일 시작해 9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보도했다.

제주일보의 시리즈 글 실는 순서는 「①먹는샘물의 역사」 「②삼다수의 태동」 「③삼다수의 발전」 「④도전에 직면한 삼다수 (1) 점점 치열해지는 국내 시장」 「④도전에 직면한 삼다수 (2)한계에 부딪힌 수출 시장」 「⑤삼다수의 미래비전 (1)국내 시장 점유율 확보전략」 「⑤삼다수의 미래비전 (2)수출시장 80개국 확대 전략」 「⑥제주개발공사 사장 인터뷰」이다.

제주 삼다수가 국내 먹는샘물 판매량 1위이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영리가 목적인 사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소개하고 사장인 인터뷰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 장점 위주로 보도한 것은 홍보성 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하고 독자들에게 균형감 없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 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33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방 상 훈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 주문

朝鮮日報 2015년 11월 12일자 「OMEGA」 별지 섹션, 매일경제 11월 13일자 「오메가」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유

朝鮮日報, 매일경제는 시계 브랜드 ‘오메가’를 주제로 각각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제작했다. 007 영화에 등장한 시계들을 사진을 곁들여 상세히 소개하고, 관련 광고도 게재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의 영리와 특정 기업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 브랜드만을 위한 섹션을 제작해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해당 광고까지 실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6-101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3.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4.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 주문

東亞日報 2015년 12월 1일자 「한양사이버대학교」 별지 섹션, 중앙일보 12월

1일자 「한양사이버대학교」, 12월 22일자 「세종대학교」 별지 섹션, 朝鮮日報 12월 1일자 「한양사이버대학교」, 12월 9일자 「성균관대학교」, 12월 22일자 「건국대학교」 별지 섹션, 경향신문 12월 23일자 「경희대학교」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유

위 신문들은 특정 대학교를 주제로 각각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제작했다. 신입생 모집 요강과 특징점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관련 광고도 게재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대학의 영리를 위한 것으로,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 대학만을 위한 섹션을 제작해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해당 광고까지 실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3084 신문윤리강령 위반

### 서울경제 발행인 이종환

### 주문

서울경제(economy.hankooki.com) 2015년 5월 13일자(캡처시각) 「토마토 몸에 좋은건 알았지만 ... 이럴수가!!」 제목의 기사와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의 화제뉴스

- 토마토 몸에 좋은건 알았지만... 이럴수가!!!
- 국민연금 미대로 가면 진짜 폭탄 된다
- 임신부 폭발 유산? 돌스타 합의금 6억을...
- 문재인 면전에 직격탄 날린 장하성
- 명품 자랑하던 한국무기의 기막힌 실상
- 이런 증상 보이면 당신도 '포르노 중독'
- 더 은밀하게... 충격 성매매 현장 덮쳐보니
- '박대통령 약속 걸어왔다' 여기저기서 폭발
- 퇴직금 세금 30% 줄이는 초대박 비법
- 공포의 北잠수함 탄도탄 개발에 일본도...

<캡처시각 15.05.13. 00:30>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5/e20150512110101117920.htm>

### 『구운 토마토 먹고 한달에 부부사랑 ... 법원의 판단은?』

한국아이닷컴 김○○기자 d\*\*\*7@hankooki.com

입력시간 2015.01.21 15:31:46 수정시간 2015.01.21 15:31:47



구운 토마토환을 개발한 엔존B&F가 광고 위반으로 품목판매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행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엔존B&F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엔존B&F는 '구운 토마토를 먹고 한달에 15번 부부사랑을 하였다...'라고 쓰인 문구를 통해 그동안 광고를 해왔으나 식약청이 체험기, 체험사례 등을 표현하는 광고로서 식품위생법 제1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품목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엔존B&F는 이 광고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토마토의 효능 및 효



과를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에 사용했을 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실제로 엔존B&F는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 리코펜(Lycopene)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심장질환과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연구 결과 토마토를 일주일에 10회 이상 먹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게 비해 전립선암이 발생할 확률이 45% 낮아져, 토마토가 남성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광고를 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구운 토마토환 광고의 경우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식품이 가진 효능의 표시,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광고에 쓰인 ‘구운 토마토를 먹고 한달에 15번 부부사랑을 하였다. 같은 연령대 남자보다 무려 세배 이상 부부사랑을...’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식품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부수적 효과로서 이 사건 식품을 광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엔존B&F 관계자는 “법원의 승소는 다시 말해 토마토의 효능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해준 것과 같다”면서 “토마토는 힘을 내는 데 필요한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정력식품이다. 그래서 우리 토마토환을 평소 휴대하며 먹으면 정력에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중심이었던 엔존B&F의 구운 토마토환은 사건 해결 기념으로 이유있는 쇼핑몰 이유샵(www.becauseshop.com)과 함께 한정수량 47% 할인 판매한다.』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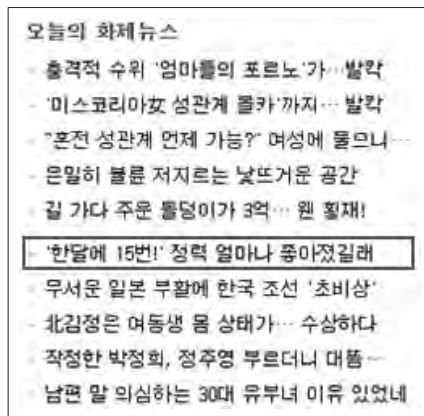
서울경제는 지난 1월 21일 「구운 토마토 먹고 한달에 부부사랑 ... 법원의 판단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후 「오늘의 화제뉴스」 코너에 수개월에 걸쳐 똑같은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이 기사는 표면적으로는 구운 토마토환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엔존B&F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산지방법

원이 엔존B&F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산지원이 언제 판결을 내렸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지난 1월 이후 수개월에 걸쳐 제목만 약간 바꾼 뒤 「오늘의 화제뉴스」 난에 계속 게재하였을 뿐 아니라, 기사 말미에 “사건 해결 기념으로 이유있는 쇼핑몰 이유샵(www.becauseshop.com)과 함께 한정수량 47% 할인 판매한다”고 업체를 홍보하는 문구를 삽입한 점으로 미뤄 과거 1심에서 승소한 내용을 과장해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경제 4월 27일자에는 건강식품 백수오 논란에 편승해 다시 내용이 거의 비슷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비록 기사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같은 코너에 몇 달씩이나 게재하고 비슷한 내용을 다시 내보내는 것은 특정 업체의 영리에 부합하려는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 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캡처시각 15.02.07 01:20>

## 2015-3150 신문윤리강령 위반

###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 주문

매경닷컴(mk.co.kr) 2015년 9월 6일자 「'돈부르는 풍수' 복권 당첨되려면 침실에다가 ...」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 이유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09.07. 0:15〉

#### 『돈부르는 풍수' 복권 당첨되려면 침실에다가 ...

기사입력 2015.09.06 11:35:29 최종수정 2015.09.06 14:07:19

복권 등 돈을 부르는 실내장식이 따로 있는 것일까. 물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믿고 있는 풍수 인테리어를 살펴보자

복권수탁업자 나눔로또가 공개한 풍수 인테리어에 따르면 먼저 집안의 서쪽 벽을 노란색으로 장식하면 금전운이 강해진다는 속설이 있다고 전했다. 또 북쪽에 진한 색상의 가구를 두고 예금통장이나 인감, 자주 이용하지 않는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면 재물을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침실에서는 침대를 놓을 때 머리 방향을 남쪽을 두고 벽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했다.

침대를 벽에 붙여 놓으면 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전운을 위해서는 침실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거나 방문을 대각선으로 바라보게 배치하고 침대 주변에 꽃이나 관엽식물을 놓으면 직감력을 높여줘 판단력과 재물운을 높여준다고 덧붙였다.

거실 테이블은 목재가 좋는데 유리 테이블이나 원형 테이블은 노력해서 힘차게 살아가려는 의욕을 빼앗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실 창가나 소파 옆에 본인의 키보다 큰 스탠드를 놓아두면 사회활동이나 승진, 건강 등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소개했다.』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풍수 인테리어」라는 이름으로 복권에 당첨되려면 “집안의 서쪽 벽을 노란색으로 장식”하고 “북쪽에는 진한 색상의 가구를 두어야” 재물운이 따른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금전운을 위해서는 침실 창문 쪽으로 머리들 두거나 방문을 대각선으로 바라보게”하며 테이블도 “유리나 원형보다는 목재가 좋다”고 밝히고 있다. 속설이라는 미명 하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이는 사회적 공기로써 온라인 신문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사실에 입각해 객관적인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언론이 비과학적인 내용을 뉴스스탠드에 톱으로 가감 없이 소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욱이 이 기사는 지난 2월 21일 매경닷컴에 게재됐던 내용으로, 독자의 불만제기로 제885차 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제2015-1-19호)를 받은 바 있다. 이미 한차례 주의를 받았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다시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기사와 함께 다른 복권 기사를 묶어 뉴스스탠드 톱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아 복권수탁업자인 나눔로또를 홍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적 책임

### 2015-3093 신문윤리강령 위반

#### 서울경제 발행인 이종환

#### 주문

서울경제(economy.hankooki.com) 2015년 6월 11일자 「메르스 의사, 박원순과 정면대결 35번 환자 상태 불안... 사망자 시신 처리원칙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위 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를 자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8시간 게재하고, 이 내용을 담은 정정보도(사과)문을 네이버 등 포털에서 2개월간 검색될 수 있도록 한다.

## 이유

###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메르스 의사, 박원순과 정면대결 35번 환자 상태 불안...사망자 시신 처리 원칙은?』

입력 2015.06.11. 00:20

메르스 의사, 박원순과 정면대결 35번 환자 상태 불안...사망자 시신 처리 원칙은?

메르스 35번째 환자이자 의사의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 처리 과정에 대한 원칙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2일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을 다루는 과정에 대해 “메르스 감염자가 사망하면 보호장구를 착용한 직원들이 병실에 들어가 시신을 더플백에 이중으로 담은 뒤 영안실까지 옮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체액 등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라며 “또한 시신 처리는 화장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reporter@hankooki.com』

### 2. 위 보도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메르스 관리대책본부가 발표한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처리 과정에 대한 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대책본부의 발표는 6월 2일 이뤄졌으나, 메르스에 감염된 삼성병원 의사의 위중 사실이 알려진 직후 6월 11일 다시 한번 기사화 한 것이다.

그런데 제목은 「메르스 의사, 박원순과 정면대결 35번 환자 상태 불안...사망자 시신 처리원칙은?」이다. 시신처리 지침 내용을 다루면서 위중한 상태인 메르스 의사의 상태를 거론함으로써, 마치 그가 죽음을 앞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 및 당사자의 가족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

다. ‘환자 상태 불안’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 보도 당시 한 매체의 오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이 제목이 주는 충격의 강도는 매우 컸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 듯 서울경제는 6월 11일 0시 20분 첫 보도 이후 8시간 여가 지난 뒤인 오전 8시 29분 제목을 「메르스 사망자 시신 처리원칙은?」으로 바꾸었으나, 본문 리드는 “메르스 의사, 박원순과 정면대결 35번 환자 상태 불안...사망자 시신 처리원칙은?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 처리 과정에 대한 원칙이 다시금 화제다.”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후 1시간 여가 지난 뒤인 오전 9시 33분에는 리드 문장을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 처리 과정에 대한 원칙이 다시금 화제다.”로 변경하였다. (참고자료 참조)

위 기사는 보도 후 두차례에 걸쳐 수정되었지만, 이미 잘못된 정보를 접한 다수의 독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였으므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마감 시간에 쫓겨 사실확인에도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오보에 확산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보도시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거나, 잘못된 점을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고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명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실제 당시 이 기사를 본 네티즌은 “마치 죽기라도 한것같은 클릭수 유도하는 악랄한 타이틀”이라고 힐난하는 등 비난이 잇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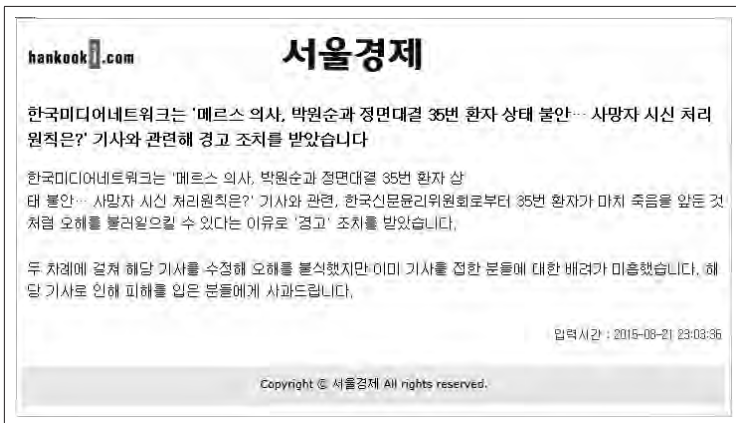
이는 재난보도준칙 제2장 「취재와 보도」 1.일반준칙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제16조(감정적 표현 자제), 제17조(정정과 반론보도), 2. 피해자 인권보호 제18조(피해자 보호)를 위반한 것은 물론 신문윤리강령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재난보도준칙은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재난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해 지난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2조 「취재준칙」 ②(재난 등 취재),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경제 수정기사

(서울경제 수정기사 1)= 『메르스 사망자 시신 처리원칙은?』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reporter@hankooki.com

입력시간 2015.06.11 00:19:42 수정시간 2015.06.11 08:29:25

메르스 의사, 박원순과 정면대결 35번 환자 상태 불안...사망자 시신 처리원칙은?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 처리 과정에 대한 원칙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2일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을 다루는 과정에 대해 “메르스 감염자가 사망하면 보호장구를 착용한 직원들이 병실에 들어가 시신을 더플백에 이중으로 담은 뒤 영안실까지 옮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체액 등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라며 “또한 시신 처리는 화장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reporter@hankooki.com』

(서울경제 수정기사 2)= 『메르스 사망자 시신 처리원칙은?』

서울경제 |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입력 2015.06.11 00:20 수정 2015.06.11 09:33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 처리 과정에 대한 원칙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2일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을 다루는 과정에 대해 “메르스 감염자가 사망하면 보호장구를 착용한 직원들이 병실에 들어가 시신을 더플백에 이중으로 담은 뒤 영안실까지 옮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체액 등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라며 “또한 시신 처리는 화장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reporter@hankooki.com』

## 2015 - 309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아주경제 발행인 곽영길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3. 쿠키뉴스 발행인 변재운
4.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준식

### 주문

아주경제(ajunews.com) 2015년 6월 11일자 「메르스 의사, 사실상 뇌사상태..장례절차 준비 중..11번째 메르스 바이러스 사망자?」 제목의 기사, 6월 12일자 「메르스 확진자 1명 사망 총 10명..」 삼성서울병원 30대 의사 뇌사..장례절차 준비」 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6월 11일자 「메르스 의사 뇌사상태, 장례준비 ... 12일까지 버티기 힘들 것」 제목의 기사, 쿠키뉴스(kukinews.com) 6월 11일자 「[긴급] '메르스 의사' 사망 ... 사망자 중 38세 최연소, 파문 커질 듯」 제목의 기사, 6월 11일자 「[메르스 확산] “'메르스 의사' 뇌사, 가족들 장례 절차 준비 중” ...」 제목의 기사, 6월 11일자 「[긴급] '메르스 의사' 사망 ... 사망자 중 38세 최연소」 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6월 11일자 「메르스 의사 '뇌사 상태' 30대 젊은 나이에 왜? ... '사이토카인 폭풍 의혹」 제목의 기사, 6월 11일자 「메르스 사망자 총 10명, 메르스 의사 뇌사 상태 ...」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 이유

1. 아주경제, 헤럴드경제, 쿠키뉴스,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주경제 1)= 『메르스 의사, 사실상 뇌사상태..장례절차 준비 중..11번째 메르스 바이러스 사망자?』

등록 2015.06.11 19:42 수정 2015.06.11 23:31

아주경제 이광호 기자=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의사 A(38세)가 사실상 퇴사 상태에 빠져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A씨의 뇌 활동은 모두 정지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고 가족들은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메르스 의사 A씨는 이달 4일 메르스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메르스 바이러스 환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메르스 의사 A씨가 사망하면 11번째 사망자가 된다.

이○○ 기자 le\*\*\*yo@ajunews.com』

**(아주경제2)= 『메르스 확진자 1명 사망 총 10명..』삼성서울병원 30대 의사 뇌사..장례절차 준비”**

등록 2015.06.12 00:02 수정 2015.06.12 00:02

아주경제 홍○○ 기자= 메르스(중등호흡기증후군) 확진자 1명이 숨져 사망자가 총 10명으로는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던 30대 의사도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16번(40) 메르스 환자로부터 감염된 83번(65) 환자가 사망했다.

83번(65) 환자는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건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돼 10일 오후 2시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사망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한편 1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30대 의사 A씨가 뇌 활동이 모두 정지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한 A씨의 가족들은 장례 절차를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이매체는 전했다.

A씨는 지난 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35)에게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일 폭로한 1565명이 참석한 서울 양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한 장본인이다.

이후 A씨는 5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것은 31일로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다”며 “메르스를 전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5일 뒤인 10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A씨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고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메르스 확진자 1명 사망 총 10명..삼성서울병원 30대 의사 뇌사..장례절차 준비”

홍○○ 기자 j\*\*\*ng@ajunews.com」

(헤럴드경제)= 『메르스 의사 뇌사상태, 장례준비 … 12일까지 버티기 힘들것

이○○ 기자 i\*\*\*ft3@reviewstar.net

입력시간 2015.06.11 19:22:20 수정시간 2015.06.11 19:35:04

11일 서울시 관계자는 “35번 확진자의 뇌 활동이 모두 정지돼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12일까지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 의사는 지난 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의사’관련 긴급 브리핑 문제로 논쟁을 벌이기도 한 메르스 의사는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것은 31일 오전이며,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상태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라는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며 “또한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참석자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사과한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편, 2~30대의 젊고 건강한 사람은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한 정부 발

표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메르스 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메르스 의사, 뇌사라니” “메르스 의사 너무 안타까워” “메르스 의사, 젊은 사람인데 사망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헤럴드 리뷰스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키뉴스 1)= 『[긴급] ‘메르스 의사’ 사망 ... 사망자 중 38세 최연소, 파문 커질 듯

입력 2015.06.11 20:34 수정 2015.06.11 20:57

[쿠키뉴스= 김○○ 기자]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 A씨(38)가 11일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확진 사망자는 총 11명이 됐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특별한 기존 중증 질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사망하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논란과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a\*\*\*o@kmib.co.kr

바로 잡습니다

해당 기사는 35번 환자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메르스 의사’ 살아있다 ... 서울대병원 “뇌사, 사망 소식 전부 오보”』

(쿠키뉴스 2)= 『[메르스 확산] “메르스 의사’ 뇌사, 가족들 장례 절차 준비 중” ... ‘38세’ 젊은이가 대체 왜?

입력:2015.06.11 19:14 수정:2015.06.11 20:56

[쿠키뉴스= 김○○ 기자] 삼성서울병원 의사이기도 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35번 환자 A씨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가 11일 나왔다. A씨는 전날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들에 포함됐으며, ‘산소마스크’

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바 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이날 “A씨는 뇌 활동이 모두 정지돼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12일까지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A씨가 38세의 젊은 나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별한 기존 중증 질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가 젊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 걸리면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A씨가 산소마스크를 착용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의구심을 자아낸 바 있다.

현재까지 메르스 사망자 10명의 평균 나이는 71.1세로 모두 고령이고 천식, 폐렴, 심장질환 등 원래 앓던 질환이 있는 경우였다. 사망자 중 의료진은 한 명도 없다.

일부에서는 젊은 층에게 발생하는 면역력 부작용 현상인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이면서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이 메르스로 사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맞지만, 젊고 지병이 없는 사람도 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일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밤 기자회견’에서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1565명이 참여한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혀 강하게 반박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격분한 A씨는 “대선을 노리는 박 시장이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고, 박 시장은 8일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라는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며 사과했다.

한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의 가족들은 “박 시장이 스트레스를 줘 면역력이 약해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o@kmib.co.kr

바로 잡습니다

해당 기사는 35번 환자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쿠키뉴스 3)= 『[긴급] ‘메르스 의사’ 사망 … 사망자 중 38세 최연소, 파문 커질 듯

입력 2015.06.11 20:34 수정 2015.06.11 20:57

[쿠키뉴스= 김○○ 기자]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 A씨(38)가 11일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확진 사망자는 총 11명이 됐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특별한 기존 증상 질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사망하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논란과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a\*\*\*o@kmib.co.kr

바로 잡습니다

해당 기사는 35번 환자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메르스 의사’ 살아있다 … 서울대병원 “뇌사, 사망 소식 전부 오보”』

(스포츠조선 1)= 『메르스 의사 ‘뇌사 상태’ 30대 젊은 나이에 왜? … ‘사이토카인 폭풍 의혹’

기사입력 2015.06.11 16:45:27 최종수정 2015.06.11 20:56:04

메르스 의사 사이토카인 폭풍

메르스 의사 ‘뇌사 상태’ 30대 젊은 나이에 왜? … ‘사이토카인 폭풍 의혹’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메르스 의사’ A(38)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원인으로 ‘사이토카인 폭풍’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 매체는 서울시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A씨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메르스 의사 A씨는 뇌 활동이 모두 정지돼 회복 불가능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 중이다. 12일 까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메르스 의사 A씨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슈퍼 전파자’로 불리는 14번 환자(35)의 옆 환자를 진료하던 중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0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의사로 알려진 35번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대중에게 공개했다.

문제는 메르스 의사 A씨가 이렇다할 기저질환 없이 폐렴으로 인한 호흡 곤란에 빠졌다는 것. 메르스 의사 A씨에겐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었지만, 당뇨병이나 만성 폐질환 등은 없었다.

이 매체는 그 원인으로 젊은 층에게 발생하는 면역력 부작용 현상인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이토카인은 병원체에 대해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면역물질이다. 하지만 감염초기 병원체가 특정 위치에서 과도하게 증식할 경우, 면역 세포들이 지나친 공격을 가하다 자해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메르스 의사 A씨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폐에서 일어난 것 아냐는 지적이다.

중요한 것은 사이토카인 폭풍은 일반적인 노약자보다 면역력이 왕성한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 2003년 사스, 1998년 뇌파뇌염 당시에도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다수의 환자들이 사망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메르스 의사 사이토카인 폭풍 메르스 의사 사이토카인 폭풍 메르스 의사 사이토카인 폭풍』

(스포츠조선 2)= 『메르스 사망자 총 10명, 메르스 의사 뇌사 상태 ... 환자 122명 중 39세 임신부까지

기사입력 2015.06.11 20:31:35

사망자 총 10명 메르스 의사 뇌사 사이토카인 폭풍

메르스 사망자 총 10명, 메르스 의사 뇌사 상태 ... 환자 122명 중 39세 임신부까지



사망자 총 10명 메르스 의사 뇌사 사이토카인 폭풍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가 10명으로 늘면서 메르스 공포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까지 메르스 확진자는 이날 추가발생한 14명을 포함해 총 122명이며, 사망자는 이날 83번 환자(65)가 사망하면서 총 10명이 됐다. 메르스 확진자 중 1명은 임신부(39세)다.

이날 확진된 14명 중 8명은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1명은 27-29일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감염됐다. 나머지 5명은 역학검사를 받고 있다.

이로써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는 총 55명이 됐다. 메르스 첫 진원지인 평택 성모병원의 37명을 뛰어넘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진자중 7번 여성 환자(28)와 37번 남성 환자(45), 13번 남성 환자(49) 등 3명이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고 밝혔다. 퇴원자는 총 7명이 됐다.

한편 35번 환자 ‘메르스 의사’ A(38) 씨는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데다 나이가 젊은 메르스 의사 A씨의 뇌사 원인으로서는 면역 물질의 과민반응을 뜻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포스트닷컴〉

사망자 총 10명 메르스 의사 뇌사 사이토카인 폭풍 사망자 총 10명 메르스 의사 뇌사 사이토카인 폭풍 사망자 총 10명 메르스 의사 뇌사 사이토카인 폭풍』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한국일보의 단독보도를 인용,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뇌사 상태에 빠져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처음 보도한 한국일보는 5시간 여가 지난 6월 12일 0시 오보를 시인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뇌사’라는 표현으로 의사 가족과 독자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럼에도 이를 보도한 해당 언론사들은 6월 23

일 현재까지도 오보에 대한 수정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아주경제는 기사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두차례 보도했으며, 이 가운데 한 기사에서는 본문 맨 끝에 ‘메르스 의사 메르스 바이러스’ 라는 실시간 검색어를 10차례 반복하였다. 쿠키뉴스는 세차례 비슷한 내용을 보낸 뒤 “바로 잡습니다 해당 기사는 35번 환자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고 알려왔습니다”고 한 줄만 붙였다. 심지어 6월 11일 오후 8시 34분 「[긴급] ‘메르스 의사’ 사망 … 사망자 중 38세 최연소, 파문 커질 듯」이라고 까지 보도했음에도, 이 내용은 삭제되지 않은 채 여전히 “해당 기사는 35번 환자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고 알려왔습니다”라는 글만 붙어 있다. 스포츠조선은 두차례 비슷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역시 실시간 검색어를 반복 사용하였다. 마감시간에 쫓겨 사실확인애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오보에 확산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보도시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거나, 잘못된 점을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고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명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한국일보의 보도를 인용, 메르스 의사가 뇌사에 빠졌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는 많으나, 기사를 삭제하거나 제목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는 심의에서 제외하였다.

통상 부고기사에서 고인에 대한 인권보호차원에서 사인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의 상태를 경마중계하듯이 시시콜콜히 알리고, 가족이 장례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밝힌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지대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는 재난보도준칙 제2장 「취재와 보도」 1.일반준칙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제16조(감정적 표현 자제), 제17조(정정과 반론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재난보도준칙은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재난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

다는 취지에서 제정해 지난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2조 「취재준칙」 ②(재난 등 취재),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한국일보 보도 내용

『메르스 감염 삼성병원 의사 “뇌 손상” 위중

채○○기자, 남○○기자

수정 2015.06.12 00:24 등록 2015.06.11 18:33

확정 판정 받은지 일주일 만에... 면역력 부작용 현상 가능성

통제 벗어난 환자 속속 발생... 정부 “3차 대유행 불가피” 시인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35번 환자 박씨(38) 씨가 뇌가 손상됐을 만큼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관련된 한 관계자는 11일 박 씨 가족이 “박 씨가 뇌가 손상되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 통보 이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측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박 씨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호흡 곤란이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님을 주치의의 통해 확인했다”며 치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씨를 치료 중인 서울대병원의료진은 “기도삽관과 강제 혈액순환을 돕는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 장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크모는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 인공막을 통해 부족한 산소를 다시 환자 몸 안에 공급하는 장치로, 심장이나 폐 기능이 거의 마비된 환자에게 쓰는 인공 심폐기다.

이달 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씨는 지난 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35) 옆 병상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4일 밤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29일 메르

스 증상이 나타난 의사가 30일 1,565명이 참여한 서울 양재동의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히면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박 씨는 당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것은 31일 오전이고 스스로 자가 격리를 했는데 메르스를 전파했다고 하니 황당하다, 박원순 시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8일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라는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며 사과했다.

박 씨는 지난 5일에도 본보 등 언론과 장시간 전화 인터뷰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의 위중한 상황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10일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하지만 박 씨는 30대로 젊은 데다 지병도 없었다. 가벼운 알레르기성 비염 정도만 앓던 건강한 사람이 위독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는 보건당국도 예측하지 못했다. 박 씨 가족들은 “박 시장이 스트레스를 줘 면역력이 약해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메르스 사망자 10명의 평균 나이는 71.1세로 모두 고령인데다 천식 폐렴 심장질환 등 원래 앓던 질환이 있었다. 사망자 중 의료진은 한 명도 없다.

일부에서는 젊은 층에게 발생하는 면역력 부작용 현상인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이면서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이 메르스로 사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맞지만, 젊고 지병이 없는 사람도 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보건당국의 통제를 비켜난 메르스 환자가 속속 나타나면서 ‘3차 대유행’이 불가피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시인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11일 국회 메르스대책 특위에 참석해 “3차 유행을 촉발시킬 ‘슈퍼 전파자’로 3명을 염두에 두고 관련 병원의 환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새 슈퍼 전파자로 지목된 환자 3명은 90번(62·사망) 98번(58) 115번(77·여)으로 삼성서울병원에 바이러스를 퍼뜨린 14번(35) 환자와 지난 달 27일 접촉했다. 이들은 확진 이전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각 지역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0번은 14번 환자는 당시 7시간 동안 응급실에 머물러 자가격리 대상이나, 열흘 가량 충북 옥천 의료기관 3곳과 대전 을지대

병원 응급실 등 4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98번 역시 서울 양천구 메디힐 병원에 5일 간 격리 없이 입원해 치료 받았다. 115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나, 확진 때까지 10일 넘게 경남 창원SK병원 등 지역 병원 4곳을 돌아다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메디힐 병원을 전격 폐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문제 병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공기 감염은 없다”고 재확인하고, 메르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면서 병원 간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 기자 c\*\*@hankookilbo.com

남○○ 기자 r\*\*\*ra@hankookilbo.com」

※본지는 앞서 박 씨의 상황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 ‘뇌사 상태’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나 의료팀이 뇌사를 공식 확인하지 않은 만큼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뇌사’라는 표현으로 가족과 독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2015-1114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북중앙신문 발행인 강 현 민

### 주문

전북중앙신문 2015년 4월 21일자 15면 「남자의 자살과 돈」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경고’한다.

### 이유

1. 전북중앙신문은 위 적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나는 어느덧 세상을 믿지 않는 나이가 되었고, 이익 없이는 아무도 오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이익 없이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부모형제도

계산 따라 움직이고, 마누라도 친구도 계산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게 싫었지만 내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너 없이는 하루가 움직이지 않았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돈, 시인 박용하)

“사람과 돈은 어긋나기 마련이라는 말도, 사람 나고 돈 났다거나 돈이 거짓말 한다는 말도 다 옛말이다. 사람은 돈을 따라 가고, 돈이 사람을 내고 돈을 쥐 손이 거짓말을 한다. 오늘날 돈 잃은 세상이란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못된다.” (시인 정끝별)

‘나에게 30원이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 대견하다. 나도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이 대견하다. 무수한 돈을 만졌지만 결국은 헛 만진 것. 쓸 필요도 없이 한 3, 4일을 나하고 침식을 같이한 돈-어린놈을 아귀라고 하지. 그 아귀란 놈이 들어 오고 나갈 때마다 집어 갈 돈. 풀방구리를 드나드는 쥐의 돈. 그러나 내 돈이 아닌 돈. 하여간 바쁨과 한가와 실의와 초조를 나하고 같이한 돈. 바쁜 돈-아무도 정시하지 못한 돈-돈의 비밀이 여기 있다.’ (돈, 시인 김수영)

“내 돈이란 결국 돈 도둑인 ‘쥐의 돈’에 불과하고 ‘돈 없는 나는 남의 집 마당에 와서 비로소 마음을 쉬는’(휴식) 아이러니가 여기서 발생한다. 도무지 ‘정시(正視)’할 수 없는 돈의 정체이자 돈의 비밀이다.” (시인 정끝별)

‘그만 일로 죄면할 게 뭐꼬. 누구나 눈 감으면 간데이. 돈 돈 하지만 돈 가지고 옛 정 살 줄 아나. 또 그만 일로 송사할 건 뭐꼬. 쑥국 끓이고 햇죽순 안주 삼아 한 잔 얼근하게 하기만 하면 세상에 안 풀릴 게 뭐 있노. 사람 살면 백년 살 건가, 천년을 살 건가. 그러지 말레이 후끈후끈 아랫목같이 살아도 다 못사는 사람 평생 니 와 모르노.’ (대좌상면오백생 對座相面五百生, 시인 박목월)

“‘대좌상면’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앉는다는 뜻이고 ‘오백생’이 오백생 혹은 한없는 생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는 뜻이니, 제목 ‘대좌상면오백생’이란 ‘서로 마주하고 앉은 오백생의 인연’ 혹은 ‘오백생의 인연으로 서로 마주하고 앉아’쯤으로 해석될 것이다. 전해지는 말로는 옷깃만 스쳐도 삼백생, 대좌상면이 오백생의 인연이라고 한다. 친구나 지인, 가족은 얼마나 깊은 인연이겠는가. 이 귀하고 소중한 인연을 돈 때문에 죄면(감정에 서로 걸리는 것이 있어, 보기도 외면해 버리는 것) 송사(訟事)할 수 있느냐며 어르고 달랜다.” (시인 정끝별)

“남자들은 압박감, 갈등, 문제 앞에서 종종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자살의 경우는 이런 공격성이 자신에게 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자살연구자 린트너는 지적한다. 절망의 순간에, 헤어지고 상처 입은 순간에, 직업적으로 실패한 순간에 남자에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한 사람이 부족하다. 여자는 친한 친구에게 가서 마음을 털어놓거나 심리치료를 찾아가는 반면, 남자는 혼자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남자는 어릴 적부터 감정 문제를 혼자 짊어진다. 남자아이들도 분노, 슬픔, 실망을 표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어려움이 줄어들 전망이 없고, 도움을 구할 전망이 없어 보이면서 절망감의 악순환에 사로잡힌 성인 남성에게 자살은 때로 자존감을 구하고 구질구질해지지 않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가온다. 이런 마음에 자살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남자들은, 특히 급진적인 방법을 취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목을 매달거나, 권총자살을 하거나, 선로에 뛰어들거나, 투신자살을 한다.” (독일 정신의학자 볼퍼스도르프 외)

“남자는 타인과 고민을 나누는 것을 주저한다. 어떤 고통이든 홀로 감내하는 것이 남자답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이런 폐쇄적 행위가 우울증, 자살로 이어진다. 자살 기도는 여자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4배 많다.” (미국 컬럼비아의대 교수 마리안 J 레가토)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죽을 권리라도 있어야 한다. 자살하는 이를 비웃지 말라. 그의 좌절을 비웃지 말라. 참아라 참아라 하지 말라. 이 땅에 태어난 행복,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의무를 말하지 말라. 바람이 부는 것은 바람이 불고 싶기 때문. 우리를 위하여 부는 것은 아니다. 비가 오는 것은 비가 오고 싶기 때문. 우리를 위하여 오는 것은 아니다. 천둥, 벼락이 치는 것은 치고 싶기 때문. 우리를 괴롭히려고 치는 것은 아니다.’

바다 속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은 헤엄치고 싶기 때문. 우리에게 잡아먹히려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헤엄치는 것은 아니다. 자살자를 비웃지 말라. 그의 용기 없음을 비웃지 말라. 그는 가장 솔직한 자. 그는 가장 자비로운 자.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책임 맡은 자. 가장 비겁하지 않은 자. 가장 양심이 살아 있는 자.’ (자살자를 위하여, 시인 마광수)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중앙신문은 4월 21일자 오피니언란에 「남자의 자살과 돈」이라는 칼럼을 실었다. 이 칼럼은 자신의 주장을 배제한 채 돈과 자살 등에 관해 언급한 국내 외 명사의 글 일부를 인용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남자에게 있어 자살의 양태와 과정이 어떠한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 마광수의 ‘자살자를 위하여’를 인용함으로써 ‘자살 예찬론’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땅에 태어난 행복,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의무를 말하지 말라.”든가 “자살자를 비웃지 말라. … 그는 가장 솔직한 자, … 가장 양심이 살아있는 자.”라는 마지막 대목은 이 글의 결론과도 같아서 마치 자살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독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크다.

특히 청소년도 읽을 수 있는 일간신문에 이러한 칼럼을 게재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칼럼 내용은 자살 보도를 신중히 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또, 위 칼럼은 뉴시스의 신동립 편집부국장의 「[신동립 잡기노트]남자의 자살과 돈」을 그대로 전재한 것인데, 전북중앙신문은 이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채 필자를 ‘신동립/언론인’으로 기재하는 데 그쳤다.

원래 이 칼럼을 자사 사이트에 게재한 뉴시스는 해당 칼럼 아래에 서울시 자살예방시민옴부즈만 측이 “자살관련 기사는 베르테르 효과, 즉 모방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외에도 파파게노 효과(일명 언론이 부추긴 자살) 등 또 다른 피해가 많다는 점 꼭 기억해 주기 바라며 신중한 기사 게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해왔다고 전문을 그대로 실었다.

따라서 위 칼럼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7조 「범죄 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보도의 신중),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 3188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문

동아닷컴(donga.com) 2015년 11월 8일자 「성기전신인형기구 명기헤라1 뒤 태의 아름다움」 제목 등 다수의 게시물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기의증명 바른생활 사나이**

11월 10, 2015 by jjiicom1124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제 방문해서 명기의증명 10 구입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전화주문할려다가 아래 주소보니까 회사 지나가는 근처쪽이라서 잠깐 방문했었죠 \* 사용품도 많이 챙겨주시고 이것저것 염으로 주셔서 집에오는길에 너무 부듯했네요 \* 명기의증명 10 사장님 말대로 앞부분 부드럽게 감싸주는게 입사하는 기분 절로 나더군여 제가 ... 글 더보기→

카테고리 : 분류되지 않음 | 댓글 남기기

**성인 전신인형기구 루시아3 동만한**

11월 8, 2015 by jjiicom1124



전에 중신인형써했는데 실감도 안나고해서 실리큰인형 찾다가 여기에서 헤라1하고 고민하다가 기왕이면 더 큰것이 좋을 것 같아 루시아3로 결정 막상 루시아받고 사용해보니 절보다는 뚱고쪽이 더 느낌이 좋아서 많이사용하고 입쪽은 아직 미사용중이에요 가슴도 탱탱하게 붙만하고 요새는 정자세 말고 침대대다가 약간 뒤로 눕히고 동영상 보면서 ... 글 더보기→

카테고리 : 분류되지 않음 | 댓글 남기기

**여성진동기 발키리 막강 슈퍼파워**

11월 6, 2015 by jjiicom1124



마사지젤 보러왔다가 이것저것 보다가 여자제품 있길래 살펴보다가 발키리 보니까 괜찮아보여 주문하는데... 광고에서 강하고 소음이적다고 해서 택배 받자마자 둘러봤는데 멀쩡이 파워가 장난이 아니던데요. 역시 성인물건은 일본 애들이 짝이게 만드네요. 와이프 처음에 보여주니까 엄청 웃더군요, 참엔 약하게 시작해서 와이프 얼굴표정 보면서 천천히 시동거니깐 ... 글 더보기→

카테고리 : 분류되지 않음 | 댓글 남기기

〈캡처시각 2015.11.11. 06:20〉

## 『성인전신인형기구 명기헤라1 뒤태의 아름다움』

카테고리 : 분류되지 않음 | 작성자 : jijicom1436

11월 8, 2015 by jijicom1436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부천에서 전화주문한 사람입니다

헤라원하고 사은품도 무자게 많이도 왔네요

바로 사용해보니 뒤로하는 자세도 각이 잘나오는편이고

똥꼬하고 버.진.으로할때는

젤 충분ㅇ히 바르고 양뺑으로 번가라가면서 하면

쪼여주는 강도가 서로 차이가 있어서 랜덤느낌 적입니다.

입으로 할때는 뺑알이 헤라원 어깨에 닿는 기분도 오묘합니다..ㅋ

3년째 혼자 사는지라 방에 인테리어겸 외롭지도않고..ㅋ

속옷을 한번 입혀볼까 생각중인데 제가 너무 변태아닌가요..ㅋ

같이하는 노총각들 많은데 여기 소개 많이해줄게요

수고하십쇼

성인전신인형기구 명기헤라1 제품보러가기 <<클릭』

## 『성인 전신인형기구 루시아3 풍만한』

카테고리 : 분류되지 않음 | 작성자 : jijicom1124

11월 8, 201 by jijicom1124



전에 풍선인형써봤는데 실감도 안나고해서  
실리콘인형 찾다가 여기에서 헤라1하고  
고민하다가 기왕이면  
더 큰것이 좋을것 같아 루시아3로 결정  
막상 루시아받고 사용해보니  
질보다는 똥꼬쪽이 더 느낌이 좋아서 많이사용하고  
입쪽은 아직 미사용중이에요  
가슴도 탱탱한게 쓸만하고  
요새는 정자세 말고 침대에다가 약간 뒤로 눕히고  
동영상 보면서 똥꼬쪽으로 하면 실감납니다.  
술먹고 아가씨집 한번 참고  
루시아3구입한거 잘한 선택인것같네요  
아직 나이는 40을 바라보는데  
미혼이라서 외로운건 어쩔수없나봐요  
사은품도 사장님이 많이주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있어요  
오버하지않고 오래 쓸려구요  
모처럼 재미거리 하나생겨  
마음속에 섹.파. 하나 생긴것같아 든든해요  
빅사이즈 루시아3 제품 보러가기 <<<클릭>>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게시물은 동아닷컴의 메가블로그인 '저널로그'에 'jjicom 1436'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올린 것으로 모두 성인용품 광고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다.

「명기의 증명 바른 생활 사나이」 제목의 게시물을 클릭하면 사용 후기 형식의 투고 내용과 함께 '제품 바로가기' 안내가 나온다. '제품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성인용품 광고가 뜬다. 「성인 전신인형기구 루시아3 풍만한」 제목의 게시물도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광고 영상에는 이밖에도 더 많은 성인용품이 사진과 함께 구입하는 방법이 게시되어 있다. 이 게시물을 올린 'jjicom1124'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위 적시 게시물 외에 16건의 게시물을 동아닷컴 저널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모두가 저속한 내용의 소위 '사용후기'를 소개한 후 성인용품 광고와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아닷컴 저널로그에는 또 여성 성상품인 '덜도'를 광고하는 게시물도 다수 올라와 있다. 동아닷컴은 이처럼 오랫동안 성인용품 판매업자들이 자사의 메가블로그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한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위 게시물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 - 3133 신문윤리강령 위반

#### 매경닷컴 발행인 장용성

#### 주문

매경닷컴(mk.co.kr) 2015년 7월 16일자 「조희준, 조용기 목사의 아들로 알려져 ...」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매경닷컴(MBN)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희준, 조용기 목사의 아들로 알려져 ...

기사입력 2015.07.16 10:40:17

조희준, 조용기 목사의 아들로 알려져 ...

조희준, 조희준, 조희준, 조희준

조희준, 조용기 목사의 아들로 알려져 ...

조희준, 그는 누구인가에 관심 집중

조희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희준 사진= MBN

조희준 전 회장은 조용기 목사의 아들로 알려졌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2002년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주식 25만 주를 교회 돈으로 매입하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목사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보아 징역 3년, 벌금 50억원과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신 조희준 전 회장은 범행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법정구속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7월 15일 서울가정법원이 전 민주당 대변인 차영씨가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한 다음날인 7월 16일에 매경닷컴의 계열사인 MBN이 보도한 내용이다.

인지청구 소송의 피고인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기사라는 점에서 위 적시기사는 인지청구 소송 기사의 관련 기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형식과 내용을 잘 살펴보면 기사를 이렇게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신문의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기사이다. 그 이유는,

첫째, 기사 앞부분에 『조희준, 조용기 목사의 아들로 알려져 …/조희준, 조희준, 조희준, 조희준/조희준, 조용기 목사의 아들로 알려져 …/조희준, 그는 누구인가에 관심 집중/조희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제목이라고 보기도 이상하고, 기사라고 보기도 이상한 문구를 나열했다는 점이다. 독자를 유인코자 한 목적일 수도 있겠으며, 그게 아니라면 기자가 기사 작성 이전에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메모 형태로 기록해둔 것을 편집자가 미리 내보낸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것이든 바람직한 보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네이버 검색창에 MBN의 위 기사와 유사한 기사가 10여건 이상 게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뷰징 혐의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조용기 목사의 아들임은 이미 여러차례 보도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위 기사는 “조 전 회장이 조 목사의 아들로 알려졌다”고 썼다. 일반인들도 두루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알려졌다’라고 써야할 이유가 없다. ‘조 전 회장도 조 목사의 친생자임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쓴 것이 아니라면, 위 기사는 매우 무성의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셋째, 위 기사에 ‘조 전 회장이 조 목사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제목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두 사람이 과거 재판에서 형을 받은 내용만 적시한 것 또한 이 기사가 오직 ‘기사를 위한 기사’, 결과적으로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적시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6-307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 주문

서울신문(seoul.co.kr) 1월 18일자 「임신한 여친 복부에 주먹질 ... 분노 부른 실험 영상」 제목의 기사와 동영상, 중앙일보(joongang Joins.com) 1월 31일자 「임신女 폭행 막장 몰카에 해외 네티즌 분노」 제목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서울신문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임신한 여친 복부에 주먹질 ... 분노 부른 실험 영상』

입력 2016.01.18 10:41 수정 2016.01.18 10:41



▲유튜브 영상 캡처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유튜버 ‘트롤스테이션’ (Trollstation)이 이를 주제로 한 실험 영상을 제작했다가 누리꾼들의 못매를 맞고 있다. 논란이 된 영상은 트롤스테이션이 지난해 4월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으로 최근 페이스북에 올라오며 구설에 올랐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다. 임신한 여자친구와 유아용품 매장을 찾은 흑인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차마 듣기 힘든 욕설을 끊임없이 늘어놓는다. 결국 이를 보지 못한 매장 직원들은 다른 고객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며 이들에게 나가달라고 정중히 부탁한다.

매장에서 쫓겨나 거리로 나오게 된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라스에서 식사 중인 남성들에게 길을 묻는다. 바로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남자친구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다며 여자친구를 추궁하더니 임신한 여자친구의 복부에 주먹질을 일삼는다.

깜짝 놀란 시민들은 여성을 남자친구에게서 떼어놓고 그제야 남자친구는 실험카메라였음을 알린다. 이에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은 듯 눈물을 쏟아낸다.

실험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역겹다”, “평소 실험카메라를 좋아하지만 이것은 도를 넘어선 것 같다”, “그래서 이 실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유튜브에는 며칠 새 이를 비난하는 2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한편 트롤스테이션은 최근 런던 지하철에서 상의를 내린 채 모유 수유를 하



는 여성과 이를 지켜보던 남성이 승강이를 벌이는 실험 영상을 제작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사진·영상= Trollstation/유튜브

영상팀 seoultv@seoul.co.kr』

〈캡처시각 16.01.30 23:15〉

(중앙일보)= 『[영상] 임신女 폭행 막장 몰카에 해외 네티즌 분노

기사입력 2016.01.31 11:19

임신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몰래카메라에 해외 네티즌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해당 영상엔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폭언과 욕설 그리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한 의류매장 안에서 말싸움을 하던 커플은 매장 직원의 요청에 의해 매장 밖으로 나가게 되자 거리에서 싸움을 계속 이어간다.



먼저 거리로 나온 여자는 거리에서 식사 중인 남성들에게 다가가 길을 묻는다.

이를 본 남자친구는 바람을 피운다고 고함을 지르며 폭언을 이어가다가 여자친구의 복부에 주먹질을 한다. 커플의 이런 모습에 거리를 지나선 시민들이 깜짝 놀라며 이들의 싸움을 말리고 나섰다. 이 순간 이들은 자신들을 말리던 시민에게 몰래카메라임을 밝히며 시민들을 진정시킨다.

시민들은 커플의 싸움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시민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런 몰래카메라를 왜 찍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막장 몰카, 끔찍하다”는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영상 Trollstation 유튜브 계정]

〈캡처시각 2016.02.02 09:19:2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2015년 4월 7일 유튜브 채널 ‘트롤스테이션’(Trollstation)에 오른 임신한 여자친구 가정폭력 실험영상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5분짜리 관련 동영상도 함께 게재되었다. 동영상을 열면 맨 처음 실험영상임을 밝히고 끝부분에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력까지 행사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놀란 주위 사람들에게 출연진이 사과하는 장면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보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배려한 흔적은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심 길거리에서 남산만하게 배가 부른 임신부를 때리고 밀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가상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생명경시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출산률이 극히 저조한 요즘 시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도 2,000건이 넘는 댓글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있다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다.

이 영상을 제작한 트롤스테이션은 기괴하고 이상한 장난영상을 주로 제작하는 회사로 자사 유튜브 채널에 500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러한 영상을 게재할 때에는 사회적 과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

회적 책임),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6-3093 신문윤리강령 위반

###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 주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16년 2월 14일자 「[B급통신] 성매매 종사자 女, 궁금증 해결사로 변신 ‘곤란한 질문도 OK’」 제목의 기사 및 [B급통신]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기사 및 편집 내용은 다음과 같다.

『[B급통신] 성매매 종사자 女, 궁금증 해결사로 변신 ‘곤란한 질문도 OK’

입력 2015.09.04 11:09 수정 2015.09.04 11:09

[스포츠서울] 미국의 한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에 대한 대중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최근 영국 언론 ‘미리’는 그린모어라는 성매매 종사자 여성을 소개했다.

이 여성은 UCC 사이트 레딧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성매매산업과 직업여성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그린모어는 오랫동안 성매매 직업 여성으로 지난 7월 2주 동안 1만 달러(약 118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관계를 가지냐”는 질문에는 “0회일 때도 있다”며 “평균 하루 7회 정도 손님과 관계를 맺는다”며 가감없이 자신의 생활을 밝혔다.

그는 또 “여성 손님과 관계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성은 남성과 비교할 때 성을 사고 파는 것에 익숙치 않은 편”이라며 “관계자체의 목적보다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나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린모어는 자신의 이런 공개적인 활동에 대해 “성 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싶다”는 이유를 밝혔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 UCC 영상 캡처』

### ※참고1: 전체 메뉴 하단

최신뉴스 야구 축구 스포츠 연예 경제 라이프 헬스 칼럼 시가대 출력

---

관련기사 **B급통신**



**[B급통신] 성매매 종사자 女, 궁금증 해결사로 변신 '근란한 질문도 OK'**

[스포츠서울] 미국의 한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에 대한 대중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최근 영국 언론 '미리'는 그린모어라는 성매매 종사자 여성을 소개했다. 이 여성은 UCC 사이트 레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성매매산업과 직업여성과 관련해 네티즌들...

- ↳ [B급통신] '길거리서 웃음 흘림출렁', 중국여들의 피치 못할 사정 2015-09-07
- ↳ [B급통신] 수상한 女 무리, 공원서 상의 탈의 후 독서를? '역대급 퍼포먼스' 2015-09-07
- ↳ [B급통신] 일본 여아나, 불륜 사진 유출...성관계 장면까지 2015-09-07
- ↳ [B급통신] 새로운 '미 성괴?', 충격 비주얼보다 반전은...여성 아니라 '남성' 2015-09-08
- ↳ [B급통신] 이상 아찔한 상상력 불러일으키는 건축물 화재 2015-09-08

〈캡처시각 02.14. 12:55〉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286597>〉

### ※참고2: 기사 하단

관련기사 **B급통신**



**[B급통신] 성매매 종사자 女, 궁금증 해결사로 변신 '근란한 질문도 OK'**

[스포츠서울] 미국의 한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에 대한 대중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최근 영국 언론 '미리'는 그린모어라는 성매매 종사자 여성을 소개했다. 이 여성은 UCC 사이트 레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성매매산업과 직업여성과 관련해 네티즌들...

- ↳ [B급통신] '길거리서 웃음 흘림출렁', 중국여들의 피치 못할 사정 2015-09-07
- ↳ [B급통신] 수상한 女 무리, 공원서 상의 탈의 후 독서를? '역대급 퍼포먼스' 2015-09-07
- ↳ [B급통신] 일본 여아나, 불륜 사진 유출...성관계 장면까지 2015-09-07
- ↳ [B급통신] 새로운 '미 성괴?', 충격 비주얼보다 반전은...여성 아니라 '남성' 2015-09-08
- ↳ [B급통신] 이상 아찔한 상상력 불러일으키는 건축물 화재 2015-09-08

〈캡처시각 02.26. 11:3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미국의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직접 네티즌의 공금증 해소 역을 자처해 2주만에 1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내용도 퇴폐적이거나 2015년 9월 4일자로 작성된 최소한 5달 이상 묵은 기사이다.

기사의 제목 앞에는 [B급통신]이란 문패가 달려있는데, 위 캡처에서 보듯 전체 메뉴 바로 아래 또는 기사 하단에 [B급통신] 관련기사가 달려 있다.

「길거리서 옷을 훌렁훌렁, 중국녀들의 피치못할 사정」, 「수상한 女무리, 공원서 상의 탈의후 독서, 역대급 포퍼먼스」, 「일본 女아나 불륜사진 유출 ... 성관계 장면까지」 제목 등 5건의 [B급통신] 관련기사도 예외 없이 5달여 전인 9월 7일과 8일에 최종 수정된 것이다. 제목은 물론 기사 내용도 하나같이 선정적이다.

언론사 홈페이지 주목도 높은 곳에 5달이나 묵은 선정적인 기사를 몇 달째 배치하는 것은 공신력 있는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10조 「편집지침」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차별과 편견의 금지

2015-1084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최삼규

### 주문

국민일보 2015년 3월 3일자 29면 「봉은사, 대표적 친일 사찰이었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지하철 9호선 929정거장 명칭으로 결정된 봉은사가 과거 ‘일본군 전몰장병 충령탑’을 설치하고 중일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범회를 여는 등 일제 식민통치를 정당화한 대표적 친일 공간(표 참조)이었던 것으로 국민일보 취재결과 밝혀졌다. 서울시는 봉은사를 역명으로 확정·고시하면서 ‘역사성 있는 봉은사가 적절하다’고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역사성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일제 식민통치를 정당화시킨 대표적 공간을 역명으로 확정= 불교는 개신교나 천도교와 달리 일찍부터 식민지배 체제에 편입됐다. 조선총독부는 불교계를 포섭·통제하기 위해 1911년 사찰령을 제정하고 31개 본산을 중심으로 1500개 사찰, 7000여명의 승려를 통제했다. 봉은사 범어사 통도사 등 본산의 주지는 조선총독부 총독의 승인을 얻어야만 취임할 수 있었으며, 본산이 지역 말사를 모두 관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당시 불교는 자연스럽게 식민권력의 통제 아래 놓였다.

봉은사는 서울과 경기도 광주·시흥·고양·여주·이천에 있는 82개 사찰과 암자를 말사로 관리해 31개 본산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찰로 손꼽혔다. 1912년부터 45년까지 봉은사 주지를 지낸 승려는 나청호 김상숙 강성인 홍태욱으로 이들 4명의 이름은 불교계에서 출간한 ‘친일승려 108인’(임혜봉)에 나올 정도로 대표적 친일인사였다. 특히 강성인과 홍태욱은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에 등재될 만큼 친일에 앞장섰던 승려다. 이들은 창씨개명도 했다.

◇30년대부터 친일행사 본격적으로 개최, 일제의 민중 정신개조·전쟁승리 기원= 봉은사에서 친일행사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은 일제가 무력통치를 강화한 30년대부터다. 34~40년 봉은사 주지였던 강성인 승려는 우가키 조선총독부 총독이 주장한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을 전 조선 불교도가 적극 협력하도록 35년 7월 심전개발사업촉진발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운동은 ‘조선 민중을 일제 통치에 협력하도록 순화시킨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봉은사에선 중일전쟁의 승리를 위해 ‘국위선양 무운장구 기원제’를 2차례 개최했다. 봉은사는 그해 8월 임시 본·말사 평의원회를 열고 일본군을 후원하는 방안을 토의했고, 봉은사 명의로 9월 국방헌금과 출정 장병 위문금을, 12월 북지황군(北支皇軍) 위문금을 200원씩 냈다. 38년에도 국방헌금과 위문금으로 총 1016원을 냈다. 당시 노동자 1년치 연봉은 130원가량 된다. 38년 7월에는 승려와 신도 100명을 모아 ‘지나사변 1주년 전몰장병 추도법요’를 열었다. 일본은 중일전쟁을 ‘지나사변’으로 부른다. 39년에는 일왕 생일인 천장절(天長節)도 지켰다.

40~45년 봉은사 주지였던 홍태욱 승려는 일제 강점기에 주지를 맡았던 4명의 승려 중 친일에 가장 앞장섰다. 그는 41년 봉은사에 소속된 신도 3만명과 ‘일본군 전몰장병 충혼위령제 및 수륙제’를 거행했고, ‘중일전쟁 4주년 기념법회’ 등도 개최했다. 본·말사를 동원해 일장기가 그려진 부채 2000개를 위문품으로 보내는 운동을 전개했고 일제 침략전쟁용 무기를 만들기 위해 철제류 수집·헌납도 결의했다. 봉은사는 43년 ‘일본군 전몰장병 총령탑’ 공사에 들어갔으며, 광복 2개월 전인 6월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곳에선 전몰장병의 명복을 비는 천도제 등이 열렸다.

◇서울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며 ‘역사성’ 답변 못해= 나청호 김상숙 승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친일에 적극 가담했다. 나청호 승려는 1914년 일본 왕비인 쇼켄의 추모식을 개최했다. 1917년 일본 시찰 때 일왕을 요배했으며,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직접 찾아가 선물을 주는 등 친일행위를 했다. 데라우치는 제3대 조선통감으로 한일병합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김상숙 승려는 조선 총독부로부터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인정받아 주지가 된 인사로 데라우치 등 일제 핵심인사의 통역을 맡았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봉은사역 역명제정관련 해명자료’를 내놓고 “서울시지명위원회가 역사성 있는 봉은사역이 적정하다고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지명위에는 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인사 2명과 역사학자 향토사학자 교통학자 국문학자 등 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한다. 국민 일보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역사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서울시지명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알려 줄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인환 서울시 강남교구협의회장은 “박원순 시장은 과거 대표적인 친일 종교 시설이었던 사찰의 미래위원장을 맡았고 그곳 이름을 강남과 서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명으로 확정·고시했다. 박 시장의 역사관은 도대체 뭐냐”면서 “이건 종교 이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서울시장 퇴진운동을 벌이기 전에 역명부터 당장 바꾸라”고 촉구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서울지하철 9호선 929정거장 명칭이 봉은사역으로 결정된 것은 ‘종교편향’이라며 역명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했으며, 위 기사도 그 중 하나다.

기사는 929정거장 명칭으로 결정된 봉은사가 일제 식민지 시절 식민통치를 정당화한 대표적 친일 공간이었던 것으로 ‘국민일보 취재결과’ 밝혀졌다고 종교 섹션(「미션라이프」) 톱기사로 보도하고, 큰 제목을 「봉은사, 대표적 친일 사찰이었다」로 달았다.

기사는 『1912년부터 45년까지 봉은사 주지를 지낸 승려는 나청호 김상숙 강성인 홍태욱으로 이들 4명의 이름은 불교계에서 출간한 ‘친일승려 108인’(임혜봉)에 나올 정도로 대표적 친일인사였다』고 전하고 『특히 강성인과 홍태욱은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에 등재될 만큼 친일에 앞장섰던 승려다. 이들은 창씨개명도 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이어 봉은사 주지였던 강성인 승려는 우가키 조선총독부 총독이 주창한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을 전 조선 불교도가 적극 협력하도록 35년 7월 심전개발사업촉진발기대회를 개최했으며, 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봉은사에선 중일전쟁의 승리를 위해 ‘국위선양 무운장구 기원제’를 2차례 개최하는 등 많은 친일활동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기사에 소개된 일제 강점기 봉은사 주지들의 친일활동 등을 담은 ‘봉은사



에서 열린 친일행사 및 주지의 친일활동' 제목의 도표를 함께 게재했다. 도표 아래쪽에는 '〈자료 : '친일인명사전' '친일승려 108인'〉'이라고 표기해 도표의 내용들을 '친일인명사전'과 '친일승려 108인'에서 인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친일인명사전'은 2009년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집이며, '친일승려 108인'은 2005년 임혜봉이 펴낸 단행본이다. 두 책자가 발간된 것은 6~10년 전이다. 국민일보는 이미 공개된 지 오래인 이들 책자의 내용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마치 취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국민일보 취재결과 밝혀졌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하기 어렵다.

더구나 두 책자에 수록된 일부 인사의 친일행위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던 점으로 미뤄 두 책자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게다가 이들 승려들의 친일 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으로서 한 행위인지 봉은사가 사찰 차원에서 한 행위인지에 대한 규명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사는 봉은사가 '대표적 친일 사찰'이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친일'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약탈 정책을 지지·옹호하여 추종함'을 뜻한다. 한국 사회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친일'로 지칭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볼 수 있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이다.

따라서 비판의 대상이 된 봉은사측으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국민일보는 이를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 기사는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 기사 본문을 과장·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115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최삼규

### 주문

국민일보 2015년 4월 2일자 26면 「“봉은사역명 이래서 부당하다”/동영상 인터넷서 큰 반향/박원순 시장 불교편향 행정 공개」 기사와 제목과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서울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명의 부당성을 알리는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불자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를 불교에 바치시겠습니까?’(youtu.be/I9eyzEV6C0g)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사진)은 지난 25일 게시된 지 8일 만에 조회수가 2만 3000건을 넘어섰다. 아이디 ‘Elena Fisher’가 제작한 6분 55초짜리 영상에는 박시장의 불교편향적인 예산·행정 지원, 봉은사역명 선정과정의 오류, 봉은사와 불교의 친일 행적, 기독교를 견제하는 불교의 실체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영상은 불교학생회 출신으로 다수의 불교단체 자문위원, 봉은사 미래위원장

등을 역임해 ‘한국 불교계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14인’에 선정됐던 박 시장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어 봉은사가 봉은사역명 제정 과정에서 신자들을 동원해 강남구청 인터넷 조사를 왜곡하고 박 시장을 찾아가 역명을 요구했던 사실도 소개된다.

특히 영상에는 역명제정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서울시의 행정이 낱낱이 드러난다. 서울시는 종교시설명에 불과한 봉은사를 929정거장 역명으로 확정했지만, 926정거장의 유력한 후보명이었던 차병원사거리에 대해선 ‘특정 시설명을 역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가 입장을 내린다.

친일 사찰의 최선봉에 섰던 봉은사의 역사성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봉은사가 역명으로 적합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다. 봉은사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 지정된 30개 대표사찰 중 하나로 항일운동을 저지하는 친일 공간이었다.

불교가 상대종교를 대하는 민낯도 그대로 드러난다. 불교는 문화재 보호 명목으로 국가에서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지만 독립운동에 앞장선 린튼 선교사의 지리산 유적지 보호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영상은 박 시장의 사과와 봉은사역명 교체를 촉구하면서 마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친일청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흘렸는데’ ‘지도자가 편파적이면 지도자는 아닙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박원순 시장’을 검색하면 볼 수 있으며, 국민일보 홈페이지(missionlife.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위 기사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명의 부당성을 알리는 동영상의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불자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를 불교에 바치시렵니까?’라는 자극적 표현이 들어있는 유튜브 영상 사진을 게재하고 기사의 대부분을 할애해 동영상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6분 55초짜리 영상에는 박 시장의 불교편향적인 예산·행정 지원,

봉은사역명 선정과정의 오류, 봉은사와 불교의 친일 행적, 기독교를 견제하는 불교의 실체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고 기술하며 박 시장과 봉은사를 비판하고 있다.

박 시장에 대해서는 『불교편향적인 예산·행정 지원』을 했으며, 서울시의 행정이 『역명제정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작은 제목에도 ‘불교편향 행정’ 표현을 넣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지원이 왜 불교편향적이며, 서울시의 행정이 왜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봉은사에 대해서는 『친일 사찰의 최선봉에 섰던 봉은사』 『조선총독부에 의해 지정된 30개 대표사찰 중 하나로 항일운동을 저지하는 친일 공간이었다』고 기술했으나, 봉은사가 왜 ‘친일 사찰’ ‘친일 공간’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다.

‘친일’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약탈 정책을 지지·옹호하여 추종함’을 뜻한다. 한국 사회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친일’로 지칭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볼 수 있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이다.

비록 위 기사가 유튜브 영상의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박 시장과 서울시, 봉은사를 시종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당사자들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일보를 이를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 기사는 박 시장과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 과장·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141 신문윤리강령 위반

中都日報 발행인 김 원 식

### 주문

中都日報 2015년 5월 7일자 1면 「충청출신〈충남·세종·대전〉 장관 언제쯤 나올까/2008년 이후 한명도 없어/충북에선 3명 나와 대조적/차관급도 7명 그쳐 최하위」·3면 「'충심 DNA' 키워야 지역도 크다/충청장관 가뭄 … 배경 있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면〉= 『박근혜 정부 들어 대전·세종·충남 출신 장관급 인사가 단 1명도 배출되지 않아 중앙 관가를 중심으로 충청 홀대론이 다시 일고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낙마로 국무위원회에 들어가는 국무위원도 단 1명도 없어 충청 민심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충청대망론' 속에서도 충청 홀대론이 존재하고 있음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게 충청정가의 먹먹함이다.

충청 정치권은 이 전 총리의 낙마와 '성원중 리스트' 파문으로 충청 민심은 생각보다 큰 상처를 입었고, 이를 치료해주기 위해선 조만간 있을 총리 지명과 내각 개편 때 대전·세종·충남 몫을 배려해줘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조사 자료(지난 2월 기준)에 따르면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충북 장관은 한민구 국방, 김종덕 문화체육관광, 윤성규 환경부장관 등 무려 3명이나 되는 반면 '대·세·충'출신 장관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집권 3년차 들어서 개각을 수차례 했음에도 대전 충남 몫은 줄곧 배정되지 않아 지역민심은 폭발 일보 직전이다.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직 132명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전 충남

은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전체의 5.3%인 7명에 그쳤다.

서울 24.2%, 부산 경남 18.9%, 대구경북 18.2%, 광주 전남 10.6%, 충북 6.8%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출신 안배보다는 능력을 고려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언급을 수차례 해온 점을 볼 때 지역 출신 장관 탄생은 요원해 보인다.

지역 출신 마지막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2008~2011년 청양 출신)이후 맥이 끊긴 상태다. 4년간 장관 없는 지역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다.

충청 정가에선 신임 총리 역시 충청을 배려해 ‘충청맨’으로 다시 해줄 것과 내각 개편을 단행하게 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대·세·충’을 배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영호남의 틈에서 충남쪽 인사들의 설 땅이 없다는 점이 반증된 것”이라며 “정치권이 합심해서 지역의 인재가 장관이 될 수 있도록 인사권자에게 천거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역대 정권이 충청의 표 향배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 것을 집권 후에는 잊어버리는 것은 충청의 민심이 선거 때마다 양당 구조가 아닌 여러 갈래로 나뉘기 때문이다”며 “지역 정치와 행정권을 아우를수 있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구심점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3면>= 『충청 홀대론’은 각 분야에서 쓰이는 어찌보면 우리 고장의 슬픈 자화상이다. 고위직 인사에서 충청은 뒷전이었고, 영호남의 틈바구니에서 어렵게 ‘생존’을 하는 딱한 처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전직 장관 출신인 한 출향 인사는 “장관 취임후 지역 출신 사무관급 이상을 불러 식사를 같이 하려 했으나 전체의 절반도 미치지 않은 공무원들만 참석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유는 자신이 충청 출신이라는 점을 노출시키기 싫어서라는 것이다.

이처럼 ‘충청은 잘 못치지 못하고 선후배를 챙기는 일도 서툰 동네’라고 인식

되고 있다.

오장섭 충청향우회 총재는 영호남 출신 고위직 인사와 정치권이 고향을 챙기는 일을 두고, 뭐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충청도 이런 ‘충심 DNA’를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완구 전 총리의 낙마와 성완중 리스트 파문에서 충청은 자존심을 크게 구겼다. 화난 민심과 여론은 충청 리더 부재로 질타하는 목소리로 들끓고 있으나 ‘구원투수’를 자처하는 리더십은 찾기 힘든 형국이다.

신임 총리 지명에 있어서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이너서클’에 충청 멤버의 숨결을 듣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한발대 유병로 교수는 리더 부재가 결국은 충청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정부 부처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유 교수는 “충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영호남의 패권주의 정치 환경구도에서 힘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호남을 패거리 문화라고 몰아붙이기만 하지, 그들의 강점과 애항심을 배우려 하지 않는 문화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출신인 B씨는 한마디로 ‘의리’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미약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국회의원 등 정무직들이 중앙과 지방(고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지역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성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충청은 매우 취약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렵게 요직에 올라선 고위직 인사들의 반응도 냉랭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승진하는데 도움을 받은 적이 없이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남(고향 사람)을 도울지 모른다는 것이다.

충청 기관장이 와서 역차별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 정권 들어서도 여의도와 청와대 안팎에 충청 인사들이 적지 않게 배치 돼 있으나 이들에게는 ‘국가 전체’만을 바라보려 하는 성향이 짙다는 것이다. 전화를 해도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지역민원을 청탁이라고 여기고 이를 아예 배제하려 들고 있다는 게 중앙 관가의 시선이다.

그럼 충청인들은 타 지역 사람들에 비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가. 대다수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시험을 봐서 국무위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핵심 인물이 특정인을 추천하느냐에 따라 장관 등 고위직의 발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은 지역 사랑의 끈끈한 정을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하고 이리면서 정치적 힘 배양, 그리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충심 DNA' 배양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바로 지금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진군의 함성 소리를 높일 때다. 2011년 이후 4년간 '대·세·충'에서 장관이 배출되지 못했더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中都日報의 위 기사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대전·세종·충남 출신은 한 명도 배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낙마 이후 국무위원 가운데 대전·세종·충남 출신은 전혀 없으며, 장관 부재 상황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2008~2011년 충남 청양 출신) 이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범 충청권으로는 현 내각에도 한민구 국방, 김종덕 문화체육관광,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충북 출신이라는 것이다.

기사는 이에 따라 『중앙 관가를 중심으로 충청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지역 민심은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전했다.

대전·세종·충남 출신 장관 부재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제기됐지만 지난 1월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 전 총리가 사퇴한 날짜가 4월 27일로, 위 기사가 나오기 불과 열흘 전인데도 불구하고 장관 부재에 따른 '충청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지역 민심이 폭발 직전이라는 위 기사의 내용은 과연 객관성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기사는 『충청 정가』나 『지역의 한 국회의원』, 지역 대학 교수 의견을 두루 전하고는 있지만, ‘충청 홀대론’에 대한 이 같은 의구심을 불식시킬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3면 해설기사의 요지는 충청 출신끼리 잘 뭉치고 고향을 잘 챙기는 ‘충심 DNA’를 잘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와 관련해 여의도와 청와대 안팎에 있는 충청 인사들이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지역민원을 청탁이라고 여기고 이를 아예 배제하려』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가 전체’만을 바라보려 하는 성향이 짙다』는 것이다. 국정정보는 출신 지역을 잘 챙겨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기사는 특히 『지역 사랑의 끈끈한 정을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바로 지금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진군의 함성을 높일 때다』라는 자극적인 글귀로 결론을 맺었다.

위 기사들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기자 개인이나 해당 신문사, 또는 소수집단의 의견을 객관적 사실에 가까운 것인 양 과장·왜곡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지역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263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매일 발행인 이 미 호

### 주문

경남매일 2015년 9월 8일자 1면 「부산시, 남강댐 ‘물 침탈’ 노골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 1. 경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남도민이 핫바지란 말인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내년 중 진주시에 사무실 개설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경남도민들은 “남의 땅에 말목을 박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경남도민의 56%가 부산시와 똑같은 낙동강을 원수로 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지만 부산시는 자신들만 진주 남강댐 ‘맑은 물’을 공급 받으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하루 취수되는 1천292만t 중 낙동강(강변여과 86t 포함)을 원수로 한 취수량이 707t으로 도내 물 공급량의 54.7%이며 이를 전체 도민의 56%인 177만여 명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도 경남도민의 정서는 안중에도 없이 부산시는 청정수인 남강댐 물 공급을 요구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면 남강댐 물 공급을 주장, 경남도민을 빨나게 만들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낙동강 수질이 해마다 나빠지고 있어 남강댐 물을 끌어와 부산 등에 공급하려는 계획이라면 경남도와 협의, 부산 경남 공동의 물 공급 계획을 추진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을 건너편 사무소 개설은 경남도민을 핫바지 취급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남강댐의 수위를 높이지 않아도 평소 유량만으로 하루 65만t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거나 갈수기를 제외하고 유량이 남을 때만 물을 가져와 경남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사무소를 개설기로 했다지만 이는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며 “부산시의 꼼수정책으로 경남도민의 마음을 달래기는커녕 문제만 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민들은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을 반대하는 경남지역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경남에 사무실을 내기로 했다지만 부산과 같은 낙동강을 원수로 한 물 공급이 경남도민 식수 사용량의 절반 이상인 현실을 감

안할 경우, 도민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란 지적이다.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천모(51) 씨는 “남는 물이 있으며 공급이 논의돼야 하겠지만 창원, 김해 등 중부경남도민이 부산과 같은 낙동강 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도 부산시가 남강댐 물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남도민이 뿔뿔 뿜쳐 억지주장을 꺾어야만 한다”고 흥분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해 9월, 정부가 홀수조절용으로 지리산댐을 건설한다는 것에 대해 “비겁하다, 식수전용의 댐을 만들어 깨끗한 1급수를 창원·김해 등 중부 경남 도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중부 경남에는 전체 340만 도민의 55%가 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물 공급 후 남는 물이 있으면 인근 부산 시민에게 공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상수도본부는 7일 남강댐 물 공급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듣기 위해 내년 중 진주에 사무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상수도본부는 현지 사무실을 통해 갈수기를 제외하고 유량이 남을 때만 물을 가져와 경남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의 위 기사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년 진주시 사무실 개설 추진방침을 계기로 쓴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 남강댐 ‘물 침탈’ 노골화』란 제목이나 기사 첫 머리의 『“경남도민이 핫바지란 말인가”』라고 한 표현은 진주시민들에게 부산시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는 듯 하다.

그 밖에도 위 기사는 『분노하고 있다』 『뿔나게 만들고 있다』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도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는 등 정제되지 않은 선동적 표현들을 동원하고 있다. 창원시 주민의 말을 인용해 『“경남도민이 뿔뿔 뿜쳐 억지주장을 꺾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보도행태는 건전한 여론을 조성해야하는 언론 본연의 자세와는 거리가

있으며 특히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 이는 보도의 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264 신문윤리강령 위반

###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 주문

헤럴드경제 2015년 9월 7일자 9면 「학교밖 청소년 28만명 ‘미스터리 폭탄」」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자신이 다니던 예전 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킨 이모군(15)처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걸도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학업 경쟁에서 밀려나고, 왕따와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매해 6만명 가량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는 아이들이 누적치로 28만명(2013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초 통계를 보면 연간 총 6만 568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부적응, 미인정유학(부모미동반유학), 해외출국, 장기결석 등으로 학교를 그만뒀다.

여가부 관계자는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 및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론 인적자원 손실, 범죄율 증가 등에 따른 비용을 발생시킨

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업중단으로 비행에 가담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실 올초 터키의 시리아 접경 소도시에서 실종된 김모(18) 군도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김군은 한국을 떠나기 전 자신의 SNS에 나라와 가족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적었다.

김군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교내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퇴 후 집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세상을 접하는 주창구는 컴퓨터였다. 안 그래도 사회인식이 뼈뺏해진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들려오는 나라 안팎의 부정적인 소식이 나라 자체를 비판케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생각이 더해질수록 신세계에 대한 열망은 커졌고, 결국 무장단체(IS) 가담이란 끔찍한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작년 김포에선 가출 여중생들이 같은 ‘팸(패밀리)’에 있던 언니가 자신들이 성매매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묻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율은 우려스런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42만 4611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절반에 가까운 17만112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에 불과한 학교밖 청소년이 전체 범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 범죄자도 매년 6만여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4세~18세의 학생범죄자 수는 5만4433명이다. 같은 연령대의 학생범죄자 숫자는 지난 2011년 5만9988명에서 2012년 6만1172명, 2013년 5만9022명으로 4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포기하고, 독학을 통해 대학진학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5518명으로 2007년(4020명)보다 37% 증가했다.

이처럼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무한경쟁의 입시 속

점수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매겨지는 성적지상주의 ▷교사 성추행 등의 사건으로 빚어진 교권의 추락과 존경·의지할만한 존재의 부재 ▷일상화된 학교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성폭력의 확산 ▷관계적 놀이문화 실종에 따른 게임·스마트폰 중독 ▷부모들의 과잉보호에 따른 예절교육 부재 등을 꼽는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왜 나왔는지를 단순히 교육 차원에서만 접근할게 아니라 가정문제, 경제적문제 등을 포함해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각종 센터만 만들지 말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학교가 사회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건 자성해보고 어떻게 가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28만명에 이르고 이들에 의해 전체 청소년 범죄 40%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최근 빈 교실에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킨 10대 등 3건의 사례를 들며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42만4611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절반에 가까운 17만1127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전체의 4%에 불과한 학교 밖 청소년이 전체 범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학업 경쟁에서 밀려나고, 왕따와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전체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표현한 것은 과장이고, 선부른 예단이다.

편집자는 한 발 더 나아가 기사 큰 제목을 「학교밖 청소년 28만명 ‘미스터리 폭탄’」이라고 자극적이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미스터리 폭탄’은 기사 본문에도 없는 표현이다.

위 기사와 제목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고, 과장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같은 보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6-1010 신문윤리강령 위반

### 국민일보 발행인 최삼규

#### 주문

국민일보 2015년 12월 18일자 34면 「“복음화율 전국 최고(34%)인 익산에 웬 이슬람 위한 시설이 …”」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여기에 할랄 식품 테마 단지가 선다고 해서 마을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서면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고 좋아했던 주민도 ‘갑자기 웬 무슬림을 위한 식품 단지냐’며 걱정이 태산이에요.”

할랄 식품 테마 단지가 조성 중인 전북 익산시 왕궁면의 주민 강모(56·여)씨는 17일 기자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지 혹시 아느냐”며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할랄 식품 테마 단지가 포함 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단지는 긴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2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익산 왕궁교회 이병목 목사는 “할랄 식품 테마 단지가 조성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우리”라며 “2,

3개월 전부터 인접해 있는 대여섯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들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익산(34%)이 이슬람화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걱정은 지난달 13일 프랑스 테러 이후 극에 달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인근에 마련된 홍보관의 한 직원은 “프랑스 테러 이후 할랄 식품 테마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이들의 방문이 부쩍 늘었다”며 “각각 다른 단체들이 3일에 한 번꼴로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16억~17억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식품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1조2920억 달러로 세계 식품 시장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할랄 식품을 제조해 수출하면 국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할랄 식품 테마 단지를 짓고 기업들이 식품을 만들어 할랄 식품 인증을 받아 수출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할랄 식품 테마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교계는 정부가 할랄 식품 테마 단지 조성에 대한 실익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고 무슬림에 대해 전혀 몰라 오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우리가 만드는 할랄 식품은 경쟁력이 없다. 유럽이 이미 할랄 식품 산업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나학수 광주겨자씨교회 목사는 “정부는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말하지만 호주의 할랄 식품인 호주산 쇠고기가 1kg당 1만 8000원인데 반해 한우는 1kg당 3만5000원으로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기독언론인연합회 임채영 사무총장은 “우리 기업이 할랄 식품을 수출하려면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인증을 받는 데만 1~2년이 걸리고 유효기간이 1~2년에 불과해 중소기업이 할랄 식품으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또 할랄 식품 테마 단지가 들어서면 인근의 다른 산업은 도태된다. 할랄 식품 제조 공장의 반경 5km 내에는 하람(이슬람 율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것)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할랄 식품 공장의 근로자는 돼지고기, 술 등 비할랄식품은 먹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어기면 할랄 식품 인증이 취소된다. 그러다 보면 할



랄 식품만 먹는 무슬림들을 고용하게 되고 이 지역에 점차 무슬림이 증가한다.

무슬림이 많아지면 테러의 위협도 증가한다는 것이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영국이 그 예다. 영국에선 파키스탄 5000여명이 입국해 할랄 도축인(할랄 식품으로 가공하기 위해 소를 잡는 사람)으로 일한다. 이들은 집단 거주를 하며 자기들만의 지역(계토)을 형성한다. 이 지역은 불법 체류자의 은신처 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모의 장소가 됐다.

익산기독교연합회 이슬람대책특별위 공동위원장 이윤익 목사는 “무슬림은 아내를 4명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성인 남성 1명이 한국으로 이주하면 가족 20여명을 데려온다”며 “무슬림 5000여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금세 익산시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할랄 식품 테마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이들은 무엇보다 무슬림의 실체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목사는 “우리가 테러범으로 부르는 무슬림들은 스스로 신앙에 따라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슬림의 증가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할랄 식품단지 익산시 왕궁면을 가다」라는 문패제목의 르포기사다. 기사는 지난달 13일 프랑스 테러이후 할랄 식품 테마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걱정이 태산”이라는 왕궁면 지역주민의 입장과 할랄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전북기독교연합회의 주장을 보도했다.

위 기사는 『할랄 식품 테마 단지가 들어서면 인근의 다른 산업은 도태된다.』, 『할랄 식품만 먹는 무슬림들을 고용하게 되고 이 지역에 점차 무슬림이 증가한다.』고 보도했다. 또 『무슬림이 많아지면 테러의 위협도 증가한다는 것이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라면서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기사는 『영국에선 파키스탄 5000여명이 입국해 할랄 도축인(할랄 식품으로 가공하기 위해 소를 잡는 사람)으로 일한다. 이들은 집단 거주를 하며 자기들만의 지역(계토)

을 형성한다. 이 지역은 불법 체류자의 은신처 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모의 장소가 됐다.』고 기술했다.

그런가하면 이 지역의 한 목사는 “우리가 테러범으로 부르는 무슬림들은 스스로 신앙에 따라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슬림의 증가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말을 그대로 전했다.

이처럼 기사는 할랄 단지가 조성되면 인근 다른 산업단지가 도태되며 무슬림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테러 위협도 증가한다면서 국가적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위 기사는 편견을 갖고 무슬림 전체를 부정적으로 기술했다는 점에서 과장 혹은 왜곡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나 인종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3190 신문윤리강령 위반

###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 주문

매경닷컴(mk.co.kr) 2015년 10월 30일자 「노조 탄생의 비극? ... 한화종합화학 직장폐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유

###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노조 탄생의 비극? … 한화종합화학 직장폐쇄』

삼성서 매각된 뒤 1년도 안돼 … 勞, 업계 최고대우 불구 임금협상안 거부

윤○○기자

입력 2015.10.30 16:10:07 수정 2015.10.30 20:12:56

노조의 계속된 무리한 요구로 속앓이를 해온 한화종합화학이 결국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해 한화로 인수되기 전까지 무노조였던 기업(삼성종합화학)이 노조가 생긴 지 1년도 안 돼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한화종합화학은 30일 “노조가 협상을 전면 거부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업상 안전문제까지 제기돼 이날 오후 2시부터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삼성에서 한화로 소속이 바뀐 한화종합화학은 올해 1월 한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생겼다. 이어 이 회사는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임금협상을 시작했다는데 사측과 노조 의견 차를 줄이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사측은 4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는 경영환경에도 전면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상여금 600% 2년 내 통상임금 적용, 일시금 150만원, 휴가 5일 신설 등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인상률(기본급 기준 6.5% 인상효과)을 노조에 제시했다.

그러나 한화중화 노조는 상여금 600% 1년 내 통상임금 적용, 일시금 300만원 지급, 임금피크제 58세 이상 적용 등을 요구하며 협상을 전면 거부해 왔다. 노조 파업이 길어지면서 한화종합화학은 어쩔 수 없이 최근 국내외 거래처에 원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화학사들 중 고순도테레프탈산(PTA)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는 모두 수백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종 업체들은 인력감축, 임금동결, 각종 처우 일시적 유예 등 생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4월 29일 지분 양도를 완결한 후 출혈을 감수하며 직원들에게 평균 5500만원에 달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당시 사업 자체로는 적자 상황이 수년째 지속됐지만 합병에 따른 근로자들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게 지급한 것이다. 한화종합화학 급여 및 복지 등 근로조건은 동종 업계 최고 수준으로 노조원 평균소득이 9000만원에 이른다.

직원 가운데 44%가량이 1억원 이상이다.

사측은 직장폐쇄와 관련해 지난 15일 동안 파업 과정에서 노조에 공장 가동 정지를 요청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홀드(HOLD)’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안전상의 위험마저 커지자 직장폐쇄를 이날 결정한 것이다. ‘홀드’는 제조공정에서 용기나 배관 내 내용물을 비우지 않고 밀봉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장기화할 경우 심각한 안전 및 재산상 손실 등을 불러올 수 있다.

『윤○○기자』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화종합화학이 10월 30일 오후 2시 부로 직장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목에서는 ‘노조 탄생의 비극?’이라고 언급했고, 본문에서도 ‘노조의 계속된 무리한 요구로 속앓이를 해온’ ‘노조가 협상을 전면 거부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 등으로 표현하였다. 반면 회사 측 입장을 이처럼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상대방인 노조 쪽 주장은 한마디도 소개하지 않았다.

노조 결성은 헌법 제33조 ①항(근로자는 근로조건외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또 노조가 파업을 비롯한 교섭 수단을 갖는 것처럼 직장폐쇄도 사용자가 선택하는 대응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 기사는 직장폐쇄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결과인 듯이 과도하면서 그 책임을 ‘노조 탄생’에 떠넘긴 것은 물론 이에 관한 노조 쪽 입장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인 데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며, “개인·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할 때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하는 보도준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